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7

루게:28

<http://www.lzchongsong.com>





토끼고기온반

토끼고기온반은 백미밥위에 삶은 토끼고기와 미나리, 참나물버섯을 얹고 뜨거운 토끼고기국물을 부어내는 밥이다.

1. 토끼고기는 삶아서 채로 썰어 데친 미나리, 간장, 파, 마늘, 참기름, 고추가루, 생강, 닭은 참깨를 넣어 무쳐놓고 참나무버섯은 같은 크기로 썰어 볶는다.
2. 백미는 밥을 지어 온반그릇에 담고 토끼고기, 미나리, 참나무버섯을 꾸미로 얹은 다음 실파, 실닭알로 고명하고 깨소금을 뿌린다.
3. 토끼고기 삶은 물에 소금과 간장을 타서 온반그릇에 붓고 양념간장과 같이낸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 01---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 03---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 05---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 06---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 07---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08---당, 정, 군련 합회의에 관한 보도

총련합회소식

- 1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 1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 기념활동진행
- 14---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을 맞으며 재중총련에서 경축연회진행
- 16---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 경축활동진행
- 17---애국의 마음을 합쳐 조국의 튼튼번영에 이바지하자
- 18---절세위인을 모시여 인민들의 재부들이 끝없이 솟구쳐오르게 될것입니다.
- 19---이 세상 유일무이한 인민의 당, 위대한 조선로동당
- 21---전승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 송병헌로병을 위문방문
- 22---《영렬을 추모하고 선배의 길을 다시 걷자》 지원군후손홍색려행출정식에 참가
- 24---최은복의장이 단동시에서 로공민들을 만났다.
- 24---“十载领航 友谊长青” 中朝友好交流活动成功举办

조국소식

- 27---동해명승 명사십리에 기쁨의 파도 끝없이 출렁인다
- 29---많은 물고기를 기르고있는 은파군 강안농장
- 31---곽산간석지 3계단 2구역의 방조제공사 결속, 근 1 0 0 0정보의 간석지 건설
- 33---위대한 전승사에 뿌듯한 자욱을 남긴 공훈무기들 적들의 아성을 짓밟개버린 3 1 2호땅크

동포소식

- 34---베일 벗은 새 수상시장, 개업 첫날부터 인산인해
- 35---《잊을 수 없는 그날》, 목소리로 시대를 기록하는 가수 박은화
- 39---조선족 전용선 중편소설 《비밀》 로신문학상 수상

중국소식

- 40---중국공산당창건 105돐 경축대회 진행
- 41---습근평주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지구인공지능관리체계수립을 주장
- 41---국무원, 《전민신체 단련계획 (2026년-2030년)》 인쇄발부
- 42---중국 첫 연료자동차 판매금지 지역 확정

조중왕래

- 43---내각총리 박태성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 4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동지와 회담
- 45---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 진행

국제소식

- 46---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 48---세계인공지능협조기구 창설
- 48---에스빠냐, 2026 월드컵 우승 차지
- 49---7대기적으로 꺾히는 세계고대유적들
- 50---전략미싸일시험발사훈련 진행, 미국과 일본 등의 비난을 일축
- 50---강하고 충실한 군대를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될수 있다고 강조

상식

- 51---애국명장 리순신
- 53---에스빠냐
- 54---말소리 흐름과 문장의 발음

련재소설

- 56--- 장편소설 립 꺾 정

전승 73돏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년대를 넘어 더욱 승화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력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3돏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2년도 안되는 요람기의 신생 국가, 창군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군대가 제국주의련합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증유의 전설적승리를 년년이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시민들로 평양체육관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률에 맞추어 전화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자욱이 오늘도 어려오는

보병총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려정을 특색있는 대형변화와 경쾌한 물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력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웠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악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년년이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용용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행진의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행진종대들을 점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박정천원수가 전승 73돃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다.

70여년전 그날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종대상징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다.

간고쳐절했던 운명적인 년대에 수령옹위에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철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벽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오에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다.

산야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놓힌 적이 더 많았던 가렬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피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

적인 근위사단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뭇기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진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제 2보병사단상징종대, 근위 서울김책제 4보병사단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에 수령의 작전적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자질로 받든 항일빨찌산출신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왔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중의 충신, 영웅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리였다.

세계를 놀래우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해방작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해방작전, 원썩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처넣은 1211고지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아갔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절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 2 어뢰정대상징종대, 근위 제 56 김지상영웅추격기련대상징종대에는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주문진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창조한 해군의 영웅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락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탄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웅적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오는 근위군기를 나뭇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에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전쟁의 3년간 포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 높뛰는 내무성상

징종대와 철도병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다. 도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시기 기계화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마차종대, 모터찌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비할바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종대들이 발구름높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전승 73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승세대의 불멸의 공적우에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력사에 전무한 통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계승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투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끝)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 성대히 진행

위대한 우리 조국에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부국강병의 력사적대업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있다.

영웅한 전화의 조국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이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 기념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장수를 따듯이 축원해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전승혁명사적부문 일군, 강사들, 전쟁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 혁명학원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외교사절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를 되새겨주고 래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회를 더해

주며 서곡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년대들에 높이 올려퍼진 전승찬가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 조국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가렬한 전화의 그날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웅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년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내를 세찬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전승 73돐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물려갈 백절불굴의 영웅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출이었다.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걸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웅주의, 빛나는 위훈을 보여주는 화면편집물과 《중국인민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출연자들은 건국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항미원조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의에 기초한 조중친선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력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이고 다음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안았다.

전승을 안아온 숭고한 정신과 넋이 맥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용용한 보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전승절기념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었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돛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돛에 즈음하여 7월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동지, 김성남동지, 주창일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국방상 노광철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릉원에 안치되어있는 모안영동지의 묘를 찾으시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교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년대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결한 넋과 희생정신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에 력력히 깃들어있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빛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을 격퇴하는 전대미문의 결사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어깨결고 한전호에서 뜨거운 피와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돛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장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
방전쟁승리 73돛에 즈음하여 7 월 26 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
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
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
하였다.

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
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
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존
함을 모신 화환이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
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 인민의 평안
과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
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만리를 헤치

며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첫 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경건
한 마음을 안으시고 주작봉마루에 오르시
여 전쟁승리에 특출한 공헌을 한 김책동
지, 강건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
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
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
의 사상정신적특질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전
승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
대,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떠올
린 근본바탕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개척과 계승으
로 성스러운 우리 위업의 전진력정에서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대
승으로 역세계 이어질것이며 선렬들의 애
국의 넋이 깃든 우리 조국은 강대한 사회
주의국가로 끝없이 룡성번영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창조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억년기틀을 다져준 혁명
렬사들이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의 빛나는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굳건한 신념의 기
둥으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경의를 표
하시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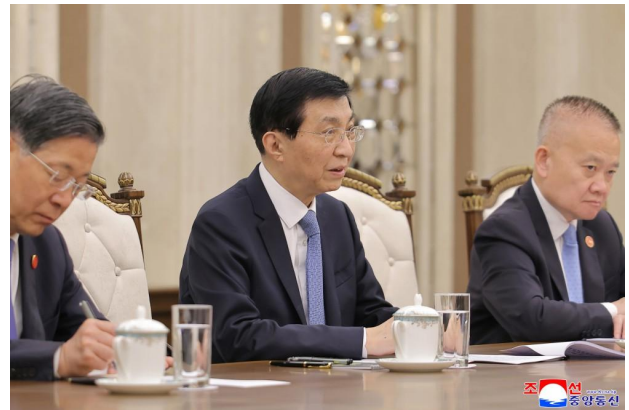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 공 화 국 국 무 위 원 장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돛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
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를 단장으
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
권대사 왕아군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호녕동지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주요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
를 나누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왕호녕동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김정은동지께 보내
는 축원과 동지적인사를 정중히 전해드
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
하시고 습근평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
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총서기동지가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 나라에 파견한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림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조약으로서 조중량국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립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있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왕호녕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평과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총서기동지가 령도하는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중국공산당창건 105돛을 뜻깊게 기념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로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끝)

당, 정, 군련 합회의에 관한 보도

강건한 규률과 엄격한 법적기강으로 혁명의 승리적진군을 담보하자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억척으로 떠메고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역사적대업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위와 강대성은 엄격한 국법, 강진한 규률제도에 반석을 두고있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는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것을 첫째가는 시대적요구로 제기하였으며 공화국의 국법은 우리 혁명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국가제도를 침식시키는 특세, 특권, 부정부패행위에 단호한 투쟁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대회결정판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온갖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반인민적행위들에 경종을 울리고 강도높은 투쟁의 심화를 알리는 당, 정, 군련합회의가 7 월 10 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합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련합회의에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들, 성, 중앙기관, 당 및 정권기관, 주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 규률조사부문, 법기관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한 인민군대 정치기관안의 부패분자들의 죄행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데 대한 문제가 취급되였다.

전 인민군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하는 자료통보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6 월 말 전 인민군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의 부정부패혐의를 립건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9 기 제 2 차전원회의는 박희철을 당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공화국최고법기관은 인민군대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갓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이자의 극악한 부패행위에 추종한 공범자들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들은 심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들로 명백히 증명되였다.

피소자 박희철은 당중앙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를 저버리고 당의 규률강화로선에 도전하여 조직권과 간부권을 악용하며 부정부패, 부정축재행위를 감행하면서 거액의 퇴물사취와 부화방탕으로 인민군대 간부대렬의 질적강화와 전투력제고, 건전한 군풍확립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피소자 박희철은 정치기관의 책임적인 직무에 틀고앉아있은 지난 4 년간 온갖 세도와 전횡을 부리면서 자기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조성하였으며 주위에 모여드는 탐욕과 직위욕이 강한 불건전한자들로부터 많은 퇴물을 받아 사취하였다.

군대안에 매판매직, 퇴물수수, 정치협잡행위를 조장시키였으며 자기의 심복, 아첨군들을 중요직제들에 배치하면서 당의 유일적령군체계확립에 저해를 주었다.

또한 극대량의 국가자금과 물자, 살림집들을 약취하고 그것을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면서 당의 령군방침관철을 사사건건 태공하였다.

박희철의 부정부패는 배태하고있는 위험성과 해독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범죄이다.

엄격한 반부패투쟁의 결과로써 우리 군대는 군사정치지도부내에 남아있는 독소와 폐물들을 적시에 제거하고 자기의 전투적위상을 보다 일신시킬수 있는 힘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심각한 정치투쟁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사상적정예화의 진일보를 견실하게 내짚게 되었으며 실천은 부정부패와의 투쟁이 강화될수록 군대가 더욱 강해지고 청결해지며 영웅적강군에 대한 당과 인민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련합회의 참가자들은 혁명대오의 질적강성과 굳건한 결속을 수비해온 엄격한 정치도덕적계률의 준수와 비타협적인 투쟁의 심화가 오늘의 중대한 력사적행정에서 가지는 필수성과 절박성을 새로이 자각하였다.

피소자들에 대한 판결이 발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특대형부패분자들의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하면서 피소자들에게 형벌들을 선고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이 그토록 경멸하는 부정축재를 억제, 적발, 제거해야 할 중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적인 직위에 있는자가 그 권한을 사리사욕의 무기로 도용하고 부정부패의 주모자로 등장한

데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규률건설로선에 도전한 정치적범죄이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한 고의적인 탐오행위, 략취범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투쟁의 강도를 부단히 높이는 때에 특대형부패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각급 규률조사부문에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않고 당적원칙을 저버리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부패행위를 막을수 없다는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을 생명으로 간직해야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당의 신임을 자각하고 인민의 눈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간부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조직사상적공세, 부정부패를 뿌리빼기 위한 법적투쟁의 강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려는 당중앙위원회의 엄숙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당, 정, 군련합회의는 혁명발전에 무익유해한 부정부패와 그 오염분자들이 배겨낼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것을 강력히 신호하였으며 온갖 부패와 규률위반행위들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압격퇴함으로써 규률로 강건하고 혁명적당풍으로 활력넘치는 집권당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고 엄격한 법적기강속에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표명하였다. (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국 단동시조선족련합회, 단동시조선족총상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2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에서 기념활동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7월 8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리순남제 1부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김경수회장과 심양시공민들이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경의를 드리었다.

이날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길림시지부, 재중조선인 청년협회,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황백하가족, 길림성송화국제무역유한공사, 주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연변북두무역유한공사 박광현, 연변회리공업무역유한공사 우치리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고 단동시지부에서 우리나라 단동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단동시지부

7월 7일 연변지구협회에서는 협회활동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협회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학습하고 기록영화《위대한 수령님》을 시청하였다.

7월 7일 중남지구협회명으로 된 꽃바구니를 조선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진정모임에 백경헌회장을 비롯한 베이징시지부공민들과 친조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전체참가자들은 이민위천, 부국강병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당과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당,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로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년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에 넘쳐있었다.

전체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판철을 위하여, 새시대 재중총련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견결히, 더욱 파감히 분투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2돐에 즈음하여 리순남제 1부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과 경제연합회 회장, 본부지도원들과 청년들이 본부회의장에서 기록영화《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를 시청하였다.

시청에 앞서 리순남제 1부의장은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그 품이 그리워 찾으며 그이를 영원한 어버이로 모신 한없는 공지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품모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에서는 인민이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피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3 뜻을 맞으며 재중총련에서 경축연회 진행



경축연회



조국해방전쟁승리 73 뜻을 맞으며 재중총련에서는 7월 24일 심양에서 경축연회를 진행하였다. 경축연회에는 중국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 마종수동지와 일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산하 조직일군들, 동포단체책임일군들과 지원군후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사에서는 총련합회를 대표하여 최은복의장이, 지원군후손을 대표하여 강진파선생이 연설하였다.



최은복의장은 오늘 우리들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 뜻을 의의있게 기념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 73 뜻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전승의 7.27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 있는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는 침략자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전승 7.27은 장장 70여년상 자기의 국기에 영웅성과 강대성의 신화만을 새겨온 우리 국가의 위용을 과시하는 경사스러운 명절이며 우리 인민에게 승리전통을 이어가는 계승자의 의지를 백배해주는 뜻깊은 계기로 되며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절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내고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저지시키였으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이 행성의 평화와 인류문명을 구원한 여기에 그 무엇으로써도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7.27의 절대적가치와 역사적무게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군대와 인민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으로 불려일으키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탁월한 전략적방침과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고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미제의 침략적야망이 산산이 짓부셔지고 하늘, 땅, 바다에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영웅신화들이 창조될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인담대한 신념과 의지로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오늘 우리 공화국무력은 오늘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끊임없이 진화되고있으며 탁월한 원수님의 령도아래 비상히 강화되는 군사력과 더불어 7.27은 영원한 강국조선의것으로 끝없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군과 어깨결고 한 전호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이룩한 중국인민지원군들의 위훈은 세기와 더불어 력사에 기록될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하나로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이며 조중친선은 위대한 수령님과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피로써 맺어진 공동의 재부로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에 의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새롭게 변함없이 굳건히 계승발전되고있는 조중친선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다채로운 친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강진파선생은 조국해방전쟁 73돐을 맞으며 모든 지원군후손들을 대표하여 조선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희생된 렬사들에게 깊은 애도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모든 지원군로전사와 영웅들에게 가장 진심어린 인사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드린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재부일뿐만아니라 력사이고 정신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원군의 후손으로서 특별한 신분으로 위대한 항미원조정신을 수호하고, 조중친선을 선전하며 실천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두나라 령도자들

의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새로운 시대의 조중두라나의 친선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는데 힘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지원군로전사 및 후손들의 조국방문성묘와 지원군렬사들을 추모, 조선인민들이 지원군렬사기념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면서 수많은 선렬들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의 뜻을 이어받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조중 두나라 인민이 피로 맺어진 전투적우정의 만고장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경축연회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뜻깊은 담화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시청하였다.



혁명활동소식시청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들 경축활동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본부 일군들과 지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김경수회장이 본부회의장에서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를 시청하고 심양주재조선총령사관을 찾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초상화에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경의를 드리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과 길림지구협회 일군들이 26일 길림육문중학교

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 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 총령사동지, 길림육문중학교 교장선생과 함께 꽃바구니 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7월 27일 중남지구 협회공민들이 오전 10시 대사관에 모셔진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계속하여 도서들을 관람하고 령사부에 모여 텔레비존으로 조국의 소식을 시

청하였다. 모임이 끝난후 공민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승명절의 한때를 즐기였다.

7월 27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연변지구협회일군들이 협회활동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학습하고 《전승세대는 우리의 힘, 마음의 기둥》신문보도를 학습하였다.

감상문

애국의 마음을 합쳐 조국의 룡성번영에 이바지하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리순남



조국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소식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에 더 힘을 넣어야 하겠는가를 명백히 가르쳐주었습니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적, 문화적갱신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중대전략사업으로 선정한것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제기할수 없는 또 하나의 거창한 대업의 선포입니다.

조국이 지금 전국적판도에서 지방의 3대필수대상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화국의 78년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지방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고있는것도 아름찬 일인데 오늘은 전국의 탄광들을 완전히 일신시킬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으니 말그대로 만집에 만집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 땅, 이 하늘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사회주의혜택을 다같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조국의 대지뿐만아니라 지하에도 로동당시대 새 문명의 밝은 빛을 환히 뿌려주고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 젖어듭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탄부라고 하면 온통 탄가루를 새까맣게 뒤집어쓰고 죽도록 일하면서도 늘 칠성판을 등에 지고다녀야 하는 막별이군으로 공인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깊이에 자리잡고 세상이 부러워할 복을 받아 안게 되었으니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지상만이 아니라 수천길땅속까지도 비치고있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만을 받들고자 맹약하고 애국의 길에 나선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이 그이의 품속에서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 손길아래 성장한 우리가 원수님 어깨우에 실린 만짐의 일부만이라도 덜어드리는것이 마땅한 자식된 도리, 제자된 의무입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살고있어도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들앞에 나선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조국의 모든 탄광지구들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저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지방변혁의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 아래 사는 해외공민들답게 자신들의 영예와 본분을 다해나갑시다.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갈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온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오직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수님께 기쁨드릴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모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내 조국의 튼튼번영에 애국의 마음을 합쳐 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절세위인을 모시여 인민들의 재부들이 끝없이 솟구쳐오르게 될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적, 문화적갱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으며 특히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일신, 천지개벽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천지개벽시킨다.》

하늘과 땅이 바뀌어진다는 경이적인 이 소식은 금방 천지개벽된 탄광마을들이 저의 눈앞에 스쳐지나가는것만 같습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집이 없어 녀마굴같은 집아닌 집에서 거적데기를 쓰고 살면서 오소리굴같은 채탄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품을 팔던 우리 탄부들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자기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였는데 당에서는 또다시 탄광마을을 천지개벽시켜준다니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활에서 집은 재부중의 재부이고 삶의 보금자리이며 세계 그 어느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를 둘러보아도 인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이 한생토록 다해도 가지지 못할 재부를 사회주의 내 나라에서는 궁전같이 지어 무상으로 준다니 이야말로 진정한 인민복무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검덕의 광산마을을 현대화한것처럼 전국의 탄광마을을 천지개벽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보도소식을 듣고 머지 않아 천지개벽된 리상마을에서 살게될 탄광마을인민들을 생각하니 저절로 코노래가 나오면서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는 조국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조국인민들은 복받은 인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불면불휴의 혁명령정에 삼가 마음을 세워보며 누구나 위대한 아버지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의 날과 달이 어떻게 흐르고 우리 조국의 눈부신 전변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희한하게 년년이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사회주의의인민적시책의 혜택을 다시한번 절감하면서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사업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명실공히 공화국의 해외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 세상 유일무이한 인민의 당, 위대한 조선로동당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김송미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진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저는 인민을 위해 또다시 만짐우에 만짐을 덧지고 나선 어머니당의 불같은 열과 정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인민의 당, 헌신의 당,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을 다시금 온넋으로 절감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부문에 남아있는 세기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는 문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성과적완수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전망적발전을 위한 차기 중장기계획수행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문제이며 우리 당이 탄부들과 한 약속이고 지체없이 전개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적문제들을 언급하시였습니다.

해야 할 사업들이 것처럼 방대하건만 우리 당은 전국의 탄광지구, 결코 탄부세대들만이 아닌 탄광마을들에 살고있는 교원, 의사를 비롯한 모든 주민세대들에게 새 살림집

을 안겨줄 방대한 변혁투쟁을 결심하고 책정하였으니 세계의 그 어느 당이 이런 결단을 내린적 있었습니까!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고 인민들과 한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당의 투철한 멸사복무자세와 완강한 집행력에 의하여 벌써 40개 시, 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섰고 올해에는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되며, 수도건설이 살림집수요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면모를 거목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이 계속 줄기차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것,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하여야 한다는 절대의 인민관과 투철한 복무정신, 인민들이 문명부유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분투는 순간의 정제도, 한치의 탈선도 없을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만이 내릴수 있는 대응단입니다.

위대한 인민의 당, 이 세상 유일무이한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가장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가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세계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그 이름 만방에 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존엄, 인민의 행복, 인민의 안녕을 위한 일은 절대로 미룰수 없는 최종대사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 장장 수십성상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투쟁해온 성스러운 려정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하여왔으며 그 나날 조국인민들과 우리 해외공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었습니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행복을 최고의 숙원으로 간직한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으며, 리상사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주춤할 권리도 없고 외면할 권리도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는 우리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받들어나아가는 우리 조국은 더없이 희한하게 변모될것이며 끝없이 강건해질것이라는것이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들며 투쟁해온 우리 모두가 확신한 진리이고 이번 전원회의와 더불어 온 나라를 진감시키는 격정이고 환희입니다.

나날이 변하고 흥성하는 조국인민들의 생활속에서 당과 조국의 고마움, 인민적시책의 혜택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저 자신도 위대한 조국의 해외공민청년회장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당 제9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벅찬 투쟁속에 전진하는 조국청년들의 힘찬 보무에 박동을 맞춰 더 높은 혁명의식과 창조력, 문화적소양을 지닌 다방면적인 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감으로써 인민의 당, 인민의 조국을 더 잘 받들어갈 맹세를 굳게 다짐합니다.

한없이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일심의 대오가 있기에 이 땅우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입니다.

전승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 송병헌로병을 위문방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 권현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돐에 즈음하여 나는 본부 일군인 동주봉사무국장과 본부청사에서 일을 하는 리종국과 함께 위문품을 사들고 심양시소가톤구에 있는 한 양로원에 찾아가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공민 송병헌전쟁로병을 위문하였다. 3층으로 된 양로원은 건물도 괜찮고 주민구역과 가깝게 있어 찾기도 쉬웠다.

2년전에 음력설을 맞으며 내가 심양시지부일군들과 함께 위문하였던 송병헌로병이 살고있던 소가톤구 8.1 진양로원보다 환경이 좋아보였다. 양로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임자인듯한 젊은 여성이 우리를 반기면서 송병헌로인이 몹시 기뻐한다면서 2층으로 안내하였다.



복도를 지나면서 문들을 열어놓은 방들을 걸논질하여보니 방마다 양로원생들로 빈침대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송병헌로병이 있는 방에 들어서면서 그가 있는 침대로 가까이 가니 군인모자와 군복을 꺼내놓고 메달을 단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침대우에 놓고 무엇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기척에 허리를 펴고 한참 보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였다.

나의 이름까지 크게 부르면서 반갑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건강하여 보이는데 전에 보던 때보다 얼굴색이 희고 약간 체중이 증가한것 같은데 정신상태는 좋아보인다.

방에는 송병헌로병외에 한족로인 셋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송병헌로병이 우리에게 앉으라고 걸상을 내주면서 필기장과 연필을 꺼내더니 글을 써서 보였다.

본부일군들과 심양공민들의 안부도 물어보았다. 듣지는 못해도 글을 써서 묻고 우리도 글을 써서 대답을 하였다. 필기장은 다른 사람과도 소통한 글들이 여러장 있었다.

올해 95세인 송병헌로병은 우리를 만나 몹시 반가워하면서 전번에 위문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쓰면서 안부를 료해하였다. 그리고 그때 차를 운전하고 위문왔던 녀성도 건강한다고 묻는다. 누군인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않아서 손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니 본부일군 김영희국장을 문안한것이였다.

송병헌로병이 부지런히 조선글을 써서 본부의 활동과 우리 공민들의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고령의 년세에 양로원에 있으면서도 본부를 관심하고 심양공민들에게 애착이 있고 공민활동에 미련이 있는것 같았다. 송병헌로병은 신체는 건강한데 청각장애로 말소리를 전혀 듣지못하였다. 기억은 좋아서 나의 손전화번호를 적으면서 맞는가고 물었다. 년세 많은 로병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가봐 우리가 걱정하니 송병헌로병은 자식들이 심양에 있다고 하면서 찾아온 우리를 보면서 몹시 감동하였다. 양로원생활에

집생각, 자식생각으로 그림고 외로울것인데 그런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적응되어서인지 자연스럽고 한하하게 보인다. 한참 글을 쓰고 받으면서 소리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추억에 잠기었다.

송병헌로병이 심양시 우흥구 대홍가두은혜양로원에서 있을때 우리가 위문갔던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와 함께 밖에서 식사까지 하였다. 은혜양로원 김길철원장이 나와도 안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송병헌로병의 인품을 칭찬하였다. 은혜양로원에 우리 공민들이 몇명이 있는데 민족풍습이 같아서 음식도 입에 맞고 모두 조선족이여서 언어도 통하고 특히 양로원환경이 아주 깨끗한것이 인상적이였다.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를 비롯한 조선족사회에서도 은혜양로원을 위문하면 전쟁로병이라고 송병헌로병을 내세워주어 여러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우리에게 내보이면서 사랑을 하였다.

후에는 멀어서인지 송병헌로병이 소가툰 8.1 진의 한족이 꾸린 양로원으로 옮겼다.

2024년 1월에 본부에서 송병헌로병과 흑룡강성 칠대하시에 살고있는 우리 공민 김수균전쟁로병을 전쟁승리훈장수여식에 초청하여 우리가 송병헌로병을 차로 모셔오고 모셔갔다.

조국에서 해마다 전승절이면 전국의 전쟁로병들을 성대한 경축행사에 청하여 영광을 안겨주곤하는데 송병헌로병은 이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양로원에서 속절없이 쓸쓸한 여생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서글프다.

떠날 시간이 되어서 일어서니 송병헌로병도 우리를 따라서 계단까지 내려주는데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저어 준다. 우리도 건강하시라고 또 오겠다고 인사하면서 헤어졌다.

이후에 몇번 오겠는지 우리는 송병헌로병이 로당익장하기를 바라면서 양로원의 문을 나섰다.

《영렬을 추모하고 선배의 길을 다시건자》 지원군후손홍색려행출정식에 참가



7월 27일 단동시문화관광 및 방송텔레비존국과 중국전략 및 관리연구회지원군연구분회가 주최하고 지원군문화창의중심에서 주관하는 《영렬을 추모하고 선배의 길을 다시걸자》 단동변경홍색려행출정식에 중국전략및관리연구회지원군연구분회의 초청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동지와 대외사업국, 문화국 국장이 참가하였다.

항미원조승리 73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이번 출정식은 단동항미원조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지원군로전사대표, 지원군후손대표 및 래빈들이 참가하였다.

출정식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로 시작되었다.

전체참가자들은 항미원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계속하여 항미원조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어서 중국전략및관리연구회지원군연구분회 邓穗회장과 단동시당위원회서기 蒋冰동지가 발언하였다. 邓穗회장은 발언에서 단동은 지원군전사들이 압록강을 건너 출정한 곳으로 이 뜨거운 대지에는 가장 생생한 전장의 기억과 가장 깊은 영웅적정신이 남아있으며 항미원조정신을 계승하는 핵심전초기지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원군연구분회는 단동시당위원회와 장기적이고 심도적으로 전략적협력을 구축하여 함께 단동의 《항미원조영웅도시》라는 붉은 명함을 더욱 빛내나갈것이라고말하였다.

蒋冰서기는 단동시당위원회, 단동시인민정부와 단동시인민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지원군선배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단동의 진흥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각급 령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였다.

그는 단동은 영웅의 도시로 위대한 항미원조정신이 도시의 혈맥속에 스며들어 가장 소중한 정신적자산이자 가장 강력한 전진의 힘이 되었으며 위대한 항미원조정신에서 힘을 얻어 선렬들이 피와 생명으로 지켜낸 조국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고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에 새로운 더 큰 공헌을 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邓穗회장과 蒋冰서기는 지원군후손대표와 지원군렬사후손대표에게 기(旗)를 수여하였다.



최은복의장동지는 중국전략및관리연구회지원군연구분회 회장과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조중두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은 친선적인 이웃나라이며 조중친선은 위대한 수령님과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피로써 맺어

진 공동의 재부라고하면서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습근평동지의 령도아래 두나라 인민의 공동리익에 맞게 한층 더 승화발전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통적인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는 길에서 적극적으로 친선활동을 전개하며 조중친선을 대대로 계승해나가는 사업에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중국전략및관리연구회지원군연구분회가 지원군연구사업에서 주목할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최은복의장이 단동시에서 로공민들을 만났다.

재중총련 최은복의장동지가 7월 28일 단동에 살고있는 로일군들을 위문방문하였다.

전 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안미자선생은 이렇게 무더운 삼복철에 의장동지가 직접 집에 찾아와 저를 방문해준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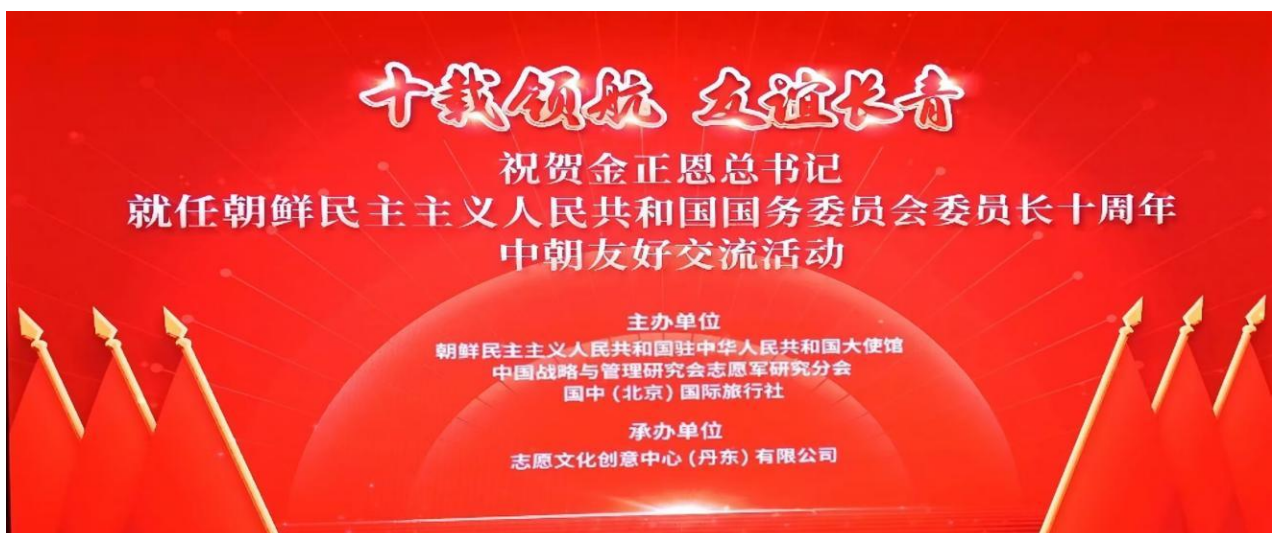
단동시지부공민 송선자선생은 매번 단동에 올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찾아준데 정말 감사하다며 감동되고 역시 조직이 있어 재중총련의 사랑과 조국의 사랑을 느낄수있다고 하였다.

의장동지는 두분은 오랜 세월 조직을 위하여 헌신한 로일군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 배울 본보기라고 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것도 우리들에 대한 지지와 고무라고 말하였다.

안미자선생과 송선자선생은 동포애가 깃든 물품까지 전달해주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조직이 있어 든든하고 앞으로 더욱 흥하고 발전되는 재중총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토로하였다.



“十载领航 友谊长青” 中朝友好交流活动成功举办



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志愿军研究分会 讯

6月28日，由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驻华大使馆、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志愿军研究分会、国中（北京）国际旅行社联合主办，志愿文化创意中心承办的“十载领航 友谊长青”友好交流活动顺利举行。活动旨在热烈祝贺金正恩总书记就任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十周年，重温两国浴血铸就的战斗情谊，落实中朝两国领导人平壤会晤重要精神，搭建民间友好交流长效平台，推动世代传承、持续巩固中朝传统友好关系。

活动现场群贤毕至、高朋满座，共计一百三十余位中朝友好代表齐聚一堂。朝鲜驻华使馆参赞郑英三及朝方官员代表团出席本次活动；志愿军老战士、志愿军英烈后代、革命先辈后人、军史研究专家、文化教育界、文旅行业及社会各界友好人士莅临现场。其中，亲历铁原阻击战等重大战役的志愿军老战士徐荣德，邓华、宋时轮、王近山、林虎、崔田民、高存信、邓仕均等开国将帅、志愿军英烈后代代表，聂荣臻教育促进会、国防大学、空军总医院、武警特种警察学院、国友联、出版传媒、航空文旅等单位专家代表悉数参会，共同见证这场承载红色记忆与兄弟情谊的民间友好盛会。

活动正式拉开帷幕后，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志愿军研究分会徐彬副会长主持了会议。

现场首先举行致敬函宣读与递交仪式。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志愿军研究分会会长、邓华上将之子邓穗上台宣读《致金正恩委员长的致敬函》，函文饱含全体志愿军老兵、英烈后代与



受邀旅中朝鲜人总联合会 中南地区白敬宪会长，北京市支部金英美支部长参加此次活动

中方友好人士的真挚心意，高度肯定十年来金正恩委员长带领朝鲜人民攻坚克难，在社会主义建设、民生改善、国防发展等领域取得

的辉煌成就，表达中方民间群体对朝鲜发展成就的由衷祝贺与美好祝愿。宣

读完毕后，邓穗会长向朝鲜驻华使馆郑英三参赞正式递交致敬函，以庄重仪式传递中朝民间跨越战火、

代代相传的深厚情谊。朝鲜驻华使馆郑英三参赞代表朝方发表致辞。他深情回顾中朝山水相连、唇齿相依的特殊渊源，重温抗美援朝战争中两国军民并肩作战、以鲜血凝成的牢不可破友谊，充分肯定志愿军研究分会长期以来深耕民间交流、传承红色历史、促进两国民心相通的积极贡献。郑英三参赞表示，朝方将持续依托驻华使馆平台，深化人文、红色文旅、革



命历史交流等民间往来，守护好老一辈用生命换来的中朝传统友谊，推动两国友好合作持续向前发展。

志愿军研究分会常务副会长肖平、

志愿军后代代表蒋永红、国中（北京）国际旅行社董事长洪雯艳先后登台发言。肖平常务副

会长阐述分会传承伟大抗美援朝精神、搭建中朝民间沟通桥梁的初心使命，介绍分会组织志愿军后代赴朝祭扫、开展红色历史研讨、举办双边文化交流等系列工作规划。志愿军第三代代表蒋永红以英烈后人视角抒发心声，讲述父辈跨过鸭绿江保家卫国的英雄故事，立下世代守护中朝兄弟情谊、传承抗美援朝精神的坚定誓言；国中国旅负责人则围绕红色文旅互通交流展开分享，表示将持续打通中朝民间互访通道，为志愿军后代赴朝祭奠、两国红色文化互访提供坚实支撑，以文旅交融拉近两国民心距离。

活动现场特别设置温情环节，志愿军老战士徐荣德的后代为老人献花，全场嘉宾共同起立鼓掌，向浴血奋战的志愿军老前辈致以崇高敬意，彰显后人传承英雄精神的坚定执着。

主题影像展播环节成为本次活动重要内容。全场共同观看时政纪录片《续写中朝传统友谊崭新篇章——习近平总书记访问朝鲜纪实》，重温两国最高领导人历史性会晤珍贵画面，深刻领会高层战略引领对于中朝关系行稳致远的关键作用，进一步明晰新时代传承、发展中朝世代友好的时代方向。



随后，现场播放朝鲜驻华大使馆提供的官方发展宣传片，全方位展现十年间朝鲜在民生建设、文化事业、国防建设、城乡发展等领域日新月异的发展面貌，直观见证朝鲜人民在金正恩委员长领导下安居乐业、奋发图强的崭新图景，与会嘉宾纷纷为朝鲜取得的发展成就感到欣喜。

光影落幕，由志愿军研究分会艺术团带来的中朝红色主题文艺专场演出精彩上演。艺术团精心编排六组经典歌舞节目，以《中朝友谊万岁》《我的祖国》等红色旋律为载体，用舞蹈、歌唱演绎烽火岁月里并肩作战的兄弟情谊，赞颂和平发展、世代友好的共同愿景，真挚动人的表演赢得现场阵阵掌声。

演出结束后，各主办单位领导上台慰问全体演职人员并集体合影留念，定格本次友好交流的珍贵瞬间。主会场活动结束后，主办方同步开放朝鲜十年发展成就主题图片展区，展出记录朝鲜十年建设风貌、中朝民间友好往来、抗美援朝红色历史的珍贵图文资料，供嘉宾自由参观交流。本次活动以祝贺金正恩委员长履职十周年为契机，融合致敬仪式、双边致辞、影像观摩、红色文艺、主题展览多元形式，搭建起覆盖志愿军老兵、英烈后代、专家学者、文旅从业者的多层次民间交流平台。

与会嘉宾一致表示，中朝传统友谊是两党两国人民共同的宝贵财富，伟大抗美援朝精神是跨越时代的精神丰碑。未来，中国战略与管理研究会志愿军研究分会将持续落实两国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持续开展红色历史传承、双边民间互访、英烈祭扫交流等特色活动，持续拉紧两国民心相通纽带，让鲜血凝成的中朝友谊薪火相传、长青不衰，为维护地区和平稳定、推动两国社会主义事业共同发展贡献民间力量。

동해명승 명사십리에 기쁨의 파도 끝없이 출렁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 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와 더불어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마다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끝없이 넘쳐나는 속에 요즘 동해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관광열차에 올랐다.

봉사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열차는 관광객들로 만원이였다.

여러 공장, 기업소의 로력혁신자들, 가족들, 학생소년들...

《지난해 제일 인상적인것은 고속보트를 타는것이였습니다.》

《기재들을 다 타보지 못한것이 얼마나 아쉽던지.》

누구나, 어느 좌석에서나 원산갈마해안 관광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절로 흥그려워졌다.

관광객들의 마음은 벌써 저 멀리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에 가있었던것이다.

그렇수록 우리 식의 해안관광도시, 인민의 문화휴양지를 일떠세워주시고도 이곳을 리용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기 위해 찾고 또 찾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로고가 마쳐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한시바빠 훌륭하게 꾸려진 관광도시에서 동해바다에 몸을 잠그고싶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담아신고 관광열차는 기세 좋게 달리였다.

어느덧 관광열차가 갈마지구를 가까이하는데 《관광지구가 보인다!》라는 그 누군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해안지대의 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각양각태의 현대미를 발산하는 관광지구의 자태가 우뚝이 안겨들었다.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 같았다.

관광지구정문에 이르니 버스와 승용차를 리용하여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합쳐져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그들속에 파묻혀 관광지구에 들어선 우리는 지난해 이미 낯을 익혔던 이곳 일군들을 또다시 만날수 있었다.

부국장 김길성동무는 우리에게 올해 해수욕계절이 시작되어 벌써 수만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 어디에나 사람바다였다.

관광용궤도전차와 축전지차에 올라 해안관광도시의 경치를 부감하며 연해연방사진을 찍는 사람들, 러장을 풀기 바쁘게 해안가로 달려가는 사람들, 훌륭하게 꾸러진 오락장들에서 각종 오락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

희열과 랑만, 행복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는 우리에게 리성혁부원은 관광객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수 있는 호텔과 러판들, 모든 조건을 원만히 구비한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에서 사람들은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동해명승의 진미를 맛보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당의 은정속에 갈마을밀봉호텔, 갈마친선호텔, 갈마백화점, 명사십리백화점의 봉사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해양체육

오락기재들과 급양봉사망들이 대폭 늘어난데 이어 갈마청류러판과 갈마대흥러판, 갈마청흥러판의 만장이 새로 특색있게 꾸러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아마도 관광객들속에서 제일 인기있는것은 해수욕관광, 해상체육관광, 해상경치부감관광일것이라며 우리를 해안가로 이끌었다.

은빛모래불이 끝간데없이 펼쳐지고 푸른 파도 출렁이는 수만명수용능력의 해수욕장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수욕을 하며 즐겁게 휴식하고있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수영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가고있었다. 그런가하면 다른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고속보트, 수상자전거, 전동파도타기판, 1인용발보트, 수상떡볶이유희기재를 리용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신의주화장품공장의 한 종업원은 지난해 신문과 TV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었는데 이렇게 정작와보니 정말 희한하다고, 관광기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떠나고 싶지 않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가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다는 명사십리아외물놀이장이였다.

맑은 물 흘러넘치는 10여개의 수조들과 썰매물미끄럼대, 사발형급속물미끄럼대, 물스키를 비롯하여 각종 기재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물놀이장에는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싶은 욕망을 누를길 없어 우리도 기재들에 몸을 실었다.

즐거움과 유쾌감, 아슬아슬한 모험도 체험할수 있는 기재들에서는 웃음소리가 연방 터져나왔다.

우리에게 봉사부원 송금철동무는 야외물놀이장에도 친어버이사랑이 어리어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6월 이곳을 돌아보시

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물놀이장 운영에서 제기될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고, 아버지의 그 손길은 관광지구의 곳곳마다에 어려있다고 걱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왔다는 한 주민은 어제는 새로 일떠선 종합봉사소에서, 오늘은 이처럼 희한하게 꾸려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휴식을 하고있다고, 정말당의 은정속에 새 문명을 마음껏 누려간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는 갈마아리랑운동판에도 들러보았다.

전자체육실, 아동오락실, 실내체육실, 당구장으로 되어있는 운동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쏘기기재들과 가상현실체험유희기재를 리용한 오락, 어린이보링, 활쏘기, 경마오락 등을 즐기고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갈마목란광명오락관, 명사십리실내물놀이장, 명사십리건강운동관 등에서도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났다.

해안관광지구의 불야경은 또 얼마나 황홀한 신비경을 펼쳐놓는것인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갖가지 색들이 조화를 이루며 대낮같이 밝힌 관광도시의 유보도를 거닐며 많은 관광객들이 밤이 지새는줄 모르고있었다.

북반은 인민의 행복상을 담아내고 동해의 파도는 끝없이 출렁이였다.

많은 물고기를 기르고있는 은파군 강안농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까.》

은파군 강안농장에서 올해 근 10정보의 논을 양어포전으로 만들고 많은 새끼메기를 놓아주었다.

논판양어정책의 생활력이 첫째부터 파시되게 하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충만된 열의와 헌신적노력에 의해 지금 논판양어는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종어장이 들어앉은 양어분조에 가면 품종이 다른 벼모를 내어 《논판메기양어》라는 글을 새긴 이채로운 포전이 눈길을 끌고 그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가는 메기들이 꼬리치는 광경을 볼수 있다.

작업반에서 논판양어를 하면서 새로 생겨난 첫 일과가 있다고, 아침에 출근하면 누구나 약속이나 한듯이 먹이를 양어포전에 뿌려주며 웃고떠드는 모습은 정말 볼

수록 호숫하다는 청년작업반 기술원 량
히성동무의 이야기도 좋다.

물고기를 정보당 수십 t 씩 생산하여 논벼
농사는 물론 논판양어에서도 큰소리를 쳐보
자는것이 자신들의 결심이라는 제 1 2 작업
반 반장 김진혁동무의 배짱도 마음에 든다.

바다면 우리 농장의 실정에서 논판양어
야말로 일거삼득 아니 일거다득할수 있는
일, 한번 마음먹고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목소리를 그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다.

정말이지 논판양어가 농장원들과 뗄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었다는것을 대
변에 느낄수 있게 하는 농장의 현실이다.

그렇수록 농장부경리 조혁철동무를 통하
여 알게 된 일들이 다시금 떠올라 저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진다.

지난 3월초 당 제 9 차대회에 대표로 참
가하고 돌아온 경리 리철복동무가 논판양
어면적을 원래의 계획보다 2 배로 늘이자
는 안을 내놓았을 때 일군들모두가 한결
같이 호응해나선것은 아니였다.

군적으로 알곡생산에서 적지 않은 몫을
맡고있는 농장의 실정에서 앞으로 벼모판
씨뿌리기, 봄갈이 등 제기되는 일감들이
여간만 아름차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가을로 계획하
였던 종어장건설도 봄철로 앞당기자는 경
리의 주장이였다.

하지만 경리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면
서 리당비서 권상진동무가 한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시여 논판
양어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밝혀주
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숭
고한 세계를 우리 다시한번 새겨보자.

인민군대처럼 당정책을 진리로, 신념으
로 받아들이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한다
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는가. ...

이렇게 논판양어를 통이 크게 해나가는
과정은 일군들로 하여금 어떤 관점과 립

장에서 당정책을 대하고 관철해야 하는가
를 돌이켜보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농장의 분위기가 일신되였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논판의 구조개조, 먹
이 및 쇠그물확보 등 논판양어준비사업으
로 세차게 들끓었는데 그 기세가 이만저
만 아니였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채를 메고 종어장건설을 본격적으로 추
진시키였다. 한편으로는 팽화먹이생산설비
제작도 동시에 내밀었다.

특별히 품을 들인것은 군에서 받아온 새
끼메기를 논에 놓아주기 전까지 잘 키우
는것이였다.

량승광동무를 비롯한 양어분조원들은 새
끼메기의 먹이를 마련하느라 한밤중에 전
지불을 켜들고 주변의 강에 나가 조개를
잡아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새끼메기들이
자라는 물탱크에 산소를 보충해주기 위해
고심도 많이 하였다. 자그마한 새끼메기를
한마리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 논에 놓
아주기 위해 몇주일동안이나 퇴근도 미루
었다.

농장에서는 모든 초급일군들과 논판양어
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논물관리공들
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차례의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단
백먹이서식장꾸리기와 나비등설치, 병예
방 등에서 나서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습
득시키였다.

이 하루하루는 농장의 일군들과 초급일
군들, 농장원모두가 논판양어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
로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자기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다시금
깨달은 나날이였다.

하기에 작업반들에서 새끼메기들을 놓아
주는 날이면 논벼와 물고기생산을 다같이
늘일수 있게 된 기쁨으로 흥성이군 하였다.

바다면 농장에 몰아치는 드세찬 논판양
어바람, 이것은 가을날의 호젓한 결실을
예고해주고있다.

곽산간석지 3계단 2구역의 방조제공사 결속, 근 1 0 0 0정보의 간석지 건설



사회안전군의 군인건설자들이 곽산간석지 3계단공사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 창조본능을 힘있게 과시해 나가고있다.

당이 펼친 대자연개조구상실현에 용약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힘찬 투쟁을 벌려 1구역공사를 결속하고 700여정보의 간석지를 건설한데 이어 2구역공사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방조제공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곽산간석지 3계단공사는 천수백정보의 간석지를 새로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여기서 2구역공사는 1구역공사량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공사에서 기본은 여러

섬을 련결하고 수천 m의 방조제들을 쌓는 것이다. 근 1 0 0 0정보의 새땅을 얻어 낼수 있는 이 공사는 보통의 각오와 담력으로써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는 방대한 과제였다.

당결정결사집행정신을 만장약하고 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완강한 분투정신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시작부터 성과를 련속 확대해나갔다.

공사지휘를 맡은 성원들은 1구역공사과정에 쌓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섬지역에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방대한 구간의 방조제공사를 립체적으로 밀고나갔다.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특히 방조제공사에서 판건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막돌과 토량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채석장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매

일련속발파를 들이대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였다.

하여 2구역공사 전 기간 수만 m의 도갱 굴진과 수백차의 발파가 진행됨으로써 수백만m³의 막돌과 토량이 마련되었다.

한편 공사지휘를 맡은 성원들은 수리기지를 현장에 접근시켜 중기계들과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여러 사업을 조직전개하였다.

그 나날 군인건설자들은 강추위에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적재함에 토량이 얼어붙는 현상을 극복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도 내놓고 새로운 휘틀조립방법을 수문공사에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는 등 부닥치는 난관들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뚫고헤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갔다.

이런 양양된 분위기에 맞게 공사지휘를 맡은 성원들은 시공을 담당한 성원들이 맡겨진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그들을 더욱 분발시켜 방조제공사의 질이 철저히 보장되게 하였다.

해당 성원들은 차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차반이구간들을 늘이고 배차조직들을 면밀히 해나갔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이 낮에 밤을 이어가며 매일 많은 량의 막돌과 토량을 운반함으로써 공사의 성과적보장에 이바지하였다.

날로 고조되는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은 방조제마감막이공사장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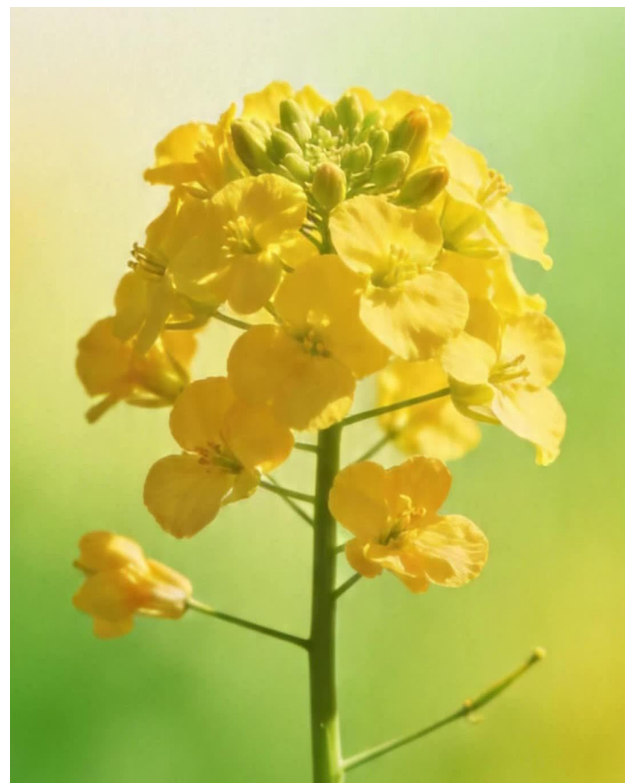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고 만조때여서 공사조건은 대단히 불리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은 당결정집행기일을 한시도 드릴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 안고 줄기찬 공격전을 들이대어 광란하는 날바다를 끝끝내 막아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순간의 답보도 없이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는 속에 지난 6월말까지 방대한 구간의 방조제내외부장석공사와 방파벽공사, 수문공사, 방조제도로공사 등이 련이어 계속되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기질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광산간석지 3계단 2구역 1호, 2호, 3호방조제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귀중한 재부인 많은 면적의 간석지가 또다시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 사회안전군의 군인건설자들은 총천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중간제방공사 등에 련속 진입하여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혁신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전승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공훈무기들 적들의 아성을 짓밟아버린 312호땅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0년대에 전승세대가 세운 특출한 위훈과 후대들에게 남긴 정신적재부와 유산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것으로 깊이 간직되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무기전시장에는 서울해방전투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운 312호땅크도 전시되어있다.

서울을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용사들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적들을 짓부시며 육박하였다.

그 전투에 선 제9땅크려단 35땅크련대(당시) 선견대땅크들은 적의 아성으로 질풍같이 돌입하였다. 성난 사자처럼 무섭게 돌진하는 이 무적의 전투서열에는 위대한 전승사에 빛나는 무훈을 남긴 312호땅크도 있었다.

피뢰 《중앙청》을 점령할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받아안은 312호땅크 승조원들은 적장갑차와 화염방사기들을 들부시며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발악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며 《중앙청》전물앞에 이르러 땅크에서 뛰어내린 고현빈포장은 계양대에서 가증스러운 적들의 기발을 끌어내리고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을 높이 띄워올리였다.

피뢰들의 아성에 높이 휘날린 우리의 공화국기!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으로 싸우면 그 어떤 원썩도 반드시 일격에 타승할수 있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끝없이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0년 7월 5일 서울해방전투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서울시에 제일먼저 돌입한 인민군장병들의 빛나는 공훈을 찬양하여 부대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리하여 312호땅크가 속한 려단은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이름도 자랑높은 서울제105땅크사단(당시)으로 명명되었다. 서울해방전투와 더불어 혁혁한 군공을 세운 312호땅크는 오늘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비의 용감성과 전투정신의 뚜렷한 상징으로 되고있다.



베일 벗은 새 수상시장, 개업 첫날부터 인산인해



19일, 연길수상시장이 새롭게 단장하여 정식 개장을 알렸다. 개장 첫날 약 5만 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다.

무용 《소매춤》, 녀성 이중창 《도라지타령》, 가무 《연변혼》 등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편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서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연변동방수상주야시장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준이 차례로 축사를 하고 발언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이라고 선포하자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구경하며 먹기'를 즐기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통 연변의 맛을 만끽하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체험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 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집하 동쪽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만 2,300평방미터이다. 새 수상시장 내부에 들어서면 민족특색을 살린 주체 건축물이 우아함을 더하며 큰 폭으로 개선된 환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부는 깨끗하면서도 동선이 편리하여 과거 복잡하던 소비 환경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각 점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있으며 순대, 찰떡, 막걸리, 조선족 국밥 등 다양한 특색 음식을 즉석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각 점포를 오가며 연변의 맛을 즐기고 특색 간식과 농수산물을 고르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했다.

시민 김씨는 《새 시장은 훨씬 깨끗하고 넓어졌다. 1층에서는 다양한 간식을 구매할 수 있고 2층에서는 경치도 감상할 수 있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릴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항주에서 온 관광객 왕씨는 《수상시장은 연길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들어서 오늘 특별히 찾아왔다. 이 건물은 조선족 특색이 물씬하고 순대와 떡이 정통 맛을 자랑해 만족스러웠다》고 감탄했다.

새 수상시장은 3층 구조로 기능 구역이 명확하고 구성도 다양하다. 1층은 민속 특색 요리와 인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족 민속 분위기를 살렸다. 2층에는 연변 특산물이 판매되며 전망대에서 강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3층은 앞으로 독서와 휴식, 여가, 비즈니스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즐기는 동시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실외 구역에는 채소와 잡곡을 판매하는 편의 점포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장보기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한 750여개의 주차 공간과 두곳의 버스 정류장이 개통되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번 새 단장을 통해 수상시장은 전통적인 점포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맛집 체험과 문화·관광 명소, 생활 편의가 결합된 다원적 소비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깔끔하고 밝은 영업 환경과 완비된 부대 시설, 다양한 업종 배치가 특징이며 변함없이 연길의 정통한 시장 정취와 함께 도시의 생동감, 시민들의 생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향후 수상시장은 도시의 문화·관광 명함을 계속 빛내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장면과 추억을 담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림신문

《잊을 수 없는 그날》, 목소리로 시대를 기록하는 가수 박은화

- 국가 1급 가수 박은화의 음악 인생과 고향 사랑

《잊을 수 없는 그날, 장백산도 춤을 추네, 그대가 우리네 마을 오셨네, 정다운 친인처럼...》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한 얼굴을 떠올린다. 바로 연변가무단 국가 1급 가수인 박은화이다.

노래가 울려 퍼지면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가수를 련상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가수에게 평생 갈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단 한 음표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목소리가 대표성을 지녀야 하고 생생한 감정과 진실된 호흡이 담겨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변 관광 열풍 속 《오색 아리랑》이 막을 올렸다.

거기에 동북리그 홈 경기장 문예공연은 물론 연변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박은화 가수, 요즘 그는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연변 문화예술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박은화 가수를 지난 23일 만나 그의 음악 세계와 고향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들어볼 수 있었다.

《운명같아요.》... 별다른 계기 없이 순리처럼 흘러간 음악의 길

음악을 시작한 계기라 할 것도 없이 박은화는 어릴 적부터 노래에 남다른 소질을 드러냈다. 다섯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동요 <은하수>를 열창해 상을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일찌감치 증명했고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그는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소학교 4학년 때부터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방학만 되면 연길로 달려갔어요. 강신자 선생님이 계몽 스승이셨는데 음악의 기본은 물론, 인생의 자세까지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게 그는 방학마다 국가급 판소리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인 강신자 교수를 찾아가 조선족 전통민요를 배웠다. 어린 나이에 힘들 법도 했을 왕복길이였지만 그 반복된 려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의 예술적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음악의 길, 의외의 곳에서 첫번째 벽에 부딪힐 줄이야. 학급에서 출근 부반장 직무를 담당하고 성적도 우수했던 딸애를 보면서 부모님은 그에게 음악은 취미로 충분하다며 학업에 더 집중할 것을 권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버팀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박은화씨는 공부를 선택했고 노래는 그저 취미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었다. 훈춘 2 고중 시절, 모교 방문문에 행사에 참석했던 동북사범대학 음악교수 김순애 선생이 박은화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음악공부를 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 한마디는 박은화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더 이상 딸의 음악적 재능을 랑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딸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원래는 공부의 길을 더 바라셨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그랬듯 제 선택을 존중해주셨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셨고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그 힘이 너무 컸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딸의 예술 뒤바라지에 온 힘을 쏟는 부모님을 보며 박은화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다짐을 했다. 음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그의 꿈은 한층 커졌다.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게 이때 또 한분의 은인을 만났어요.》 박은화에게 좀 더 높은 대학을 바라봐도 되겠다며 격려를 해주었던 립정 교수의 조언을 좇아 그는 중국음악학원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중앙민족대학 음악학원 교수이자 저명한 성악가인 립정 교수를 찾아 북경으로 향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박은화는 성악 공부에 몰두했다. 박은화의 우스개처럼 코피를 쏟으며 공부한 끝에 우수한 성적으로 음악명문 중국음악학원에 진학했다.

다시 고향으로, 고향을 노래하는 가수로

《산 밖에 산》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명문 음악학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박은화는 졸업후 북경에 자리를 잡았다. 3년 동안 다양한 사업 현장을 경험하며 실력을 쌓아갔다.

하지만 북경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는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많은 생각 끝에 박은화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향행을 결심했다.



대도시의 화려함보다 익숙한 그리움을 선택한 그는 그렇게 연변으로 돌아왔고 우연한 기회로 연변가무단에 입단하게 되면서 고향의 무대에서 새로운 음악 인생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연변은 <가무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연변가무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중국조선족 종합 예술단체이고요. 그 일원으로서 저는 조선족 가무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악을 전공한 박은화는 연변 전통민요의 정서와 성악적 기교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연변의 예술을 전국 무대는 물론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목소리로 시대를 기록하는 가수

장인처럼 쌓은 시간이 있었기에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다.

2015년 7월 습근평 총서기의 연변 시찰을 계기로 시경춘 선생이 작사하고 주룡 선생이 우리말로 개사했으며 저명한 조선족 작곡가 상남 선생이 작곡한 노래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박은화는 자신의 목소리로 고스란히 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10월 5일 연변텔레비죤방송국 '매주일가'를 통해 방송되면서 박은화는 일약 시청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연변은 물론 전국 무대에서 초청이 이어지며 그는 명실상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우뚝 섰다.

나아가 대표곡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박은화는 2016년 길림성음력설문예야회에 올랐다. 같은해 3월에는 CCTV-15 음악채널 《민요·중국》프로에 출연하여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 연변의 음악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특히 이 노래는 2017년 장백산문예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앨범으로 발매되며 여러 영예를 두루 안았다.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박은화로 하여금 쉽 없이 달리게 한다. 습근평 총서기의 연변 시찰 10주년을 맞아 2025년 7월 1일에 《잊을 수 없는 그날》(감은분

진의 10 년) 특별 음악회를 열었고 2025 년에 발간된 《해란강에 얹힌 정-잊을 수 없는 그날》(情系海兰江·难忘的那一天 丛玉杰 著)에서 박은화는 이렇게 말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더욱 깊이 있게 불러 이 노래가 <붉은 해 변경 비추네>처럼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로 기억되는 예술가, 연변을 알리는 《홍보대사》



박은화의 음악은 친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전통민요의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감성과 리듬이 살아있어 소수민족 특색 민족 성악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 민악의 선율이 목소리와 어우러져 독특한 민속 풍격을 그려 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그는 목소리만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믿는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특색이 있다는 말은 가수로서 최고의 찬사》라며 그는 자신만의 음색을 통해 민족음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이 주목받고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박은화는 또 전통음악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련된 편곡과 다양한 플레트홈을 활용한 소통 방식을 모색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박은화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이자 길림성음악가협회 부주석이며 길림성 제 12 기, 제 13 기 정협위원으로서 그는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족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방면에 관한 여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가수에게 무대가 제 1 선이고 고향의 무대, 그곳이 저의 전부입니다.》

인터뷰 내내 박은화는 고향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다.

그에게 음악은 이제 직업 만이 아닌 삶의 리유이자 고향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다. 고향을 알리고 고향의 문화를 알리고 고향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그의 음악적 신념이라면 그의 음악철학은 곧 대중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술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선족 가무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으며 시대에 발맞춰 전국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박은화가 자주 하는 말이다.

수년간 그는 조선족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힘쓰며 중국조선족 문예사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계승·발양하고 중국조선족 문예 사업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는 또 변함없는 박은화의 목소리이자 목소리로 연변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다짐과 포부이기도 하다.

/길림신문

조선족 전용선 중편소설 《비밀》 로신문학상 수상



7월 15일, 제 9 회 로신문학상 결과가 발표됐다.

흑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흑룡강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1 위 순위로 중편소설 부문 상을 받았다.

혁명력사소재 문학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렬사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지키며 영웅적으로 목숨을 바친 장렬한 려정과 인격 매력을 보여주며 동북항련정신의 불멸의 힘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바친 문화적 선물이다.

전용선은 흑룡강성의 유명한 작가다.

그가 만든 드라마 《벼랑》, 영화 《벼랑위에서》는 전국에서 여러 업계 기록을 세웠고 영상 분야에서 넓은 영향력을 가졌다.

이번 수상은 새 시대 흑룡강 문학의 창작 실력과 핵심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

1966 년 1 월 흑룡강성 이춘시에서 태어난 전용선은 1984 년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해 장편소설 《독신자(独身者)》, 《설랑(雪狼)》, 중단편소설집 《한사(恨事)》, 《소화 18 년(昭和十八年)》, 영화대본 《벼랑위에서(悬崖之上)》, 시집 《류랑하는 달(流浪的月亮)》을 출판했고 조선족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헤는 밤》을 번역했으며 2014 년 흑룡강성 문학원에서 전임작가를 맡았다.

2021 년 영화 《벼랑위에서》로 제 30 회 화정상 최고극본상을 수여받았다.

/본지종합

중국공산당창건 105돐 경축대회 진행

중국공산당창건 105돐 경축대회가 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각계층 대표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의 시작이 선포되자 전체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국가를 합창하였다.

습근평동지가 오랜 기간 기층에서 당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면서 특출한 기여를 한 모범당원들에게 《7.1 훈장》을 수여하였다.

전국의 우수한 당원들과 당일군들, 선진적인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표창사업이 진행되었다.

습근평동지가 중요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체 중국공산당원들에게 명절축하의 인사를 보냈으며 《7.1 훈장》 수훈자들과 표창을 받은 전국의 우수한 당원들과 당일군들, 선진적인 기층당조직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창건이래 시종일관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민족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국이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가지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성과는 공산당원들이 세대를 이어 꾸준히 투쟁한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력정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전체 중국공산당원들이 신심을 굳게 가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앞에 몇몇한 새로운 업적을 부단히 창조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와 당중앙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적극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라가 강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녕할수 있다고 하면서 새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령도를 견지하며 국방 및 군대현대화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주력군이라고 하면서 그는 새시대 중국 청년들은 확고부동하게 당에 복종하고 당을 따르며 시대의 중임을 용감하게 결머지고 새로운 력정에서 력사적계승을 잘함으로써 청춘의 리상을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투쟁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당의 당원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하며 전국의 모든 민족 인민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새롭고 휘황한 력사를 힘껏 창조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노래 《인터나쇼날》의 주악으로 끝났다.

앞서 6월 29일 중국공산당창건 105돐 경축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습근평주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지구인공지능관리체제수립을 주장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17일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전지구인공지능관리에 관한 고위급 회의개막식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빠른 속도로 일어남으로써 전지구인공지능기술혁신이 전례없는 활성화에 들어섰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인공지능이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원천으로 되게 하며 각국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지구인공지능관리체제를 수립할것을 주장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인공지능협조기구가 창설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행동, 보다 전망적인 안목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인공지능발전의 기회를 틀어쥐고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사회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손잡고 개척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무원, 《전민신체단련계획(2026년-2030년)》 인쇄발부

북경 7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 《전민신체단련계획(2026년-2030년)》(이하 《계획》이라 약칭함)을 인쇄발부하고 《15.5》시기 전민신체단련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할 데 대해 포치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전민신체단련과 전민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건강증진공공서비스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각측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신체단련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하여 전민신체단련 기본공공서비스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건강증진공공서비스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체육경기와 전민신체단련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건강증진공공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조직이 질서 있게

발전하고 전민신체단련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되도록 한다.

일인당 체육활동장소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지도자가 3.3명에 달하며 정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체질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



《계획》에서는 10개 방면의 주요과업을 포치했다.

여기에는 전민신체단련제도체계 끊임없이 보완, 군중 주변 신체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경기활동 전개, 전민신체단련조직 서비스망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단련 지도, 서비스능력 강화, 인공지능 활용한 전민신체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의 차별화된 신체건강수요 충족, 전민신체단련문화 보급, 전민신체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가치 발휘, 전민신체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계획》에서는 목표과업의 완수를 둘러싸고 보장조치를 제기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민신체단련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전민신체단련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

/인민넷-조문관

중국 첫 연료자동차 판매금지 지역 확정

최근 해남은 《15차 5개년 계획》 해남국가생태문명시범구계획(아름다운 해남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부했다.

《계획》은 해남자유무역항의 교통운수 녹색명합장을 구축한다고 제기했다.

2030년까지 연료자동차 판매금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까지 전 성의 공공서비스와 사회운영 분야 신규 및 교체 차량(특수용도 제외) 청정에너지비율과 개인용 차량 분야 신규 및 교체 차량 신에너지비율을 100%에 도달시키며 차량충전소비비를 2.5:1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

또한 《계획》에 명시된 정량적 목표에 따르면 해남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 비율은 2025년의 23.75%에서 《15차 5개년 계획》 말기의 4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넷

내각총리 박태성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가 10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만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박태성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따뜻한 동지적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박태성동지는 조중 두 나라가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지난 6월에 진행된 조중평양수뇌상봉은 조중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쌍무관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깊은 관심속에 올해 조약체결기념일에 즈음한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게 됨으로써 조중친선의 전략적성격이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의 혁명적단결과 공영발전, 사회주의위업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적극 추동해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최근 조선을 국가방문하여 **김정은**총비서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지침을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맺은 전투적우의를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 정치적 및 법률적기초를 쌓았다고 하면서 대를 이어 친선적으로 지내고 운명을 같이하며 서로 지키고 도와주는것은 일관한 중조관계의 선명한 특징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언제나 사회주의위업을 공고히 하고 위대한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협조를 강화하고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하여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동지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주요성원들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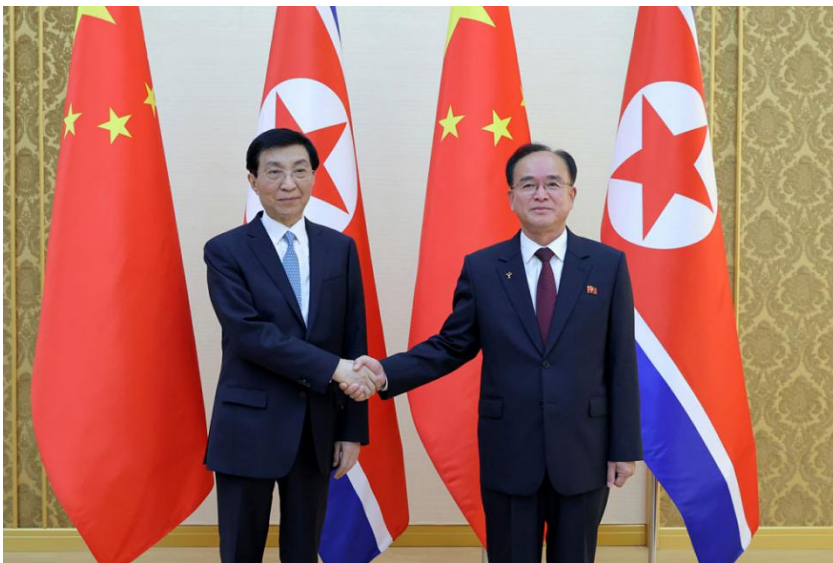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동지와 회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가 15일 평양의사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와 회담하였다.

조용원동지는 격변하는 현 국제정치정세는 두 나라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근본정신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전투적단결과 지지련대를 더욱 강화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부단히 심화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의 직접적인 관심과 현명한 령도밑에 조중친선관계는 자기발전의 새로운 활력기를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과 전술적협력을 긴밀히 하며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왕호녕동지는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우의를 공고히 할수 있는 법률적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조약체결 65돐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아름다운 장을 펼치고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룩된 중요합의를 근본지침으로 삼고 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당적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심화시켜 량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동지, 외무성 부상 김명수동지, 도시경영성 부상 강철호동지가, 중국측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겸 비서장 왕동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류해성동지,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 제옥동지, 퇴역군인사업부장 배금가동지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주요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이날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 진행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 기념연회가 16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을 성대히 기념하고 조약의 전략적성격과 조중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조중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직접적인 인도밑에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그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조중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친선의 새로운 개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려정에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의 중요한 법률적기초이라고 하면서 량국민민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우의를 맺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호상 지지련대하고 협조하며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 지켜주며 돕는것은 중조관계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하면서 그는 습근평총서기동지와 김정은총비서동지께서는 7차례 상봉하시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력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도록 인도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김정은총비서동지가 령도하는 조선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조친선의 바통이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영원한 조중친선과 조중 두 나라의 부강번영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연이 있었다.

연회는 동지적우애와 친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끝)/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

1921 년 6 월 초, 국제공산당대표 마린과 국제공산당국동서기처 니코르스끼가 차레로 상해에 도착하여 상해의 공산당조기조직 구성원인 리달, 리한준과 연락을 취하였다. 몇번의 토의를 통해 그들은 조속히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중국공산당을 정식으로 창건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리달과 리한준은 당시 광주에 있는 진독수, 북경에 있는 리대소와 서신을 통해 상의 하여 상해에서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북경, 무한, 장사, 제남, 광주와 일본화교의 당조직에도 서신을 보내 각각 2 명의 대표를 상해에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다.

국 내각지 당조직과 일본화교당조직의 대표 13 명이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각기 상해의 리달, 리한준, 무한의 동필무, 진담추, 장사의 모택 동, 하숙형, 제남의 왕진미, 등은명, 북경의 장국도, 류인정, 광주의 진공박, 일본의 주불해와 진독수가 지목한 포혜승 등이다. 그들은 50 여명의 당원을 대표하였다.

국제공산당대표 마린과 니코르스끼도 함께 대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광동정부 교육위 원회 위원장을 맡은 진독수와 북경대학의 도서관주임과 교수를 맡고 있는 리대소는 공 무가 바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는 1921 년 7 월 23 일 저녁에 개막되었다. 회의장소는 상해프랑스조계지 망지로 106 호(지금의 홍업로 76 호)에 있는 리한준의 형 리서성의 자택으로 정해졌다.

회의장은 간소하였지만 분위기는 장중하였다.

국제공산당대표 마린이 기조연설로써 중국공산당창건을 경축하였다.

그는 국제공산당의 개황을 소개하면서 회의진행상황을 국제공산당국동서기처에 제때 에 보고할것을 건의하였다. 뒤이어 대표들은 대회의 임무와 의사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토론을 시작하였다.

7 월 24 일, 각 지역대표는 소속지역당조직과 단조직의 상황을 대회에 보고하였다. 7 월 25 일과 26 일, 이틀간의 휴회기간에 장국도, 리달, 동필무 등은 회의에서 토론할 당 의 강령과 앞으로의 실제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7 월 27 일과 28 일, 29 일 연속 사흘동안 열린 세차례 회의에서 당의 강령과 결 의를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7 월 30 일 저녁, 대표들이 회의하고 있을 때 낯선 중년남자가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장 을 한바퀴 둘러본 후 급급히 나갔다. 장기간 비밀(정보)사업에 종사하였던 마린은 즉 시 이자가 밀정임을 알아차리고 회의를 중단시켰다.

대부분 대표들이 신속히 전이하였다. 10 여분이 지나 프랑스조계지 순경들이 회의장을 포위하고 살살이 수색하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표들의 활동이 감시를

받아 더이상 상해에서 회의를 할수없게 되어 마지막날회의를 절강성 가흥남호의 한 유람선에서 진행하였다.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강령에서는 당의 명칭을 <중국공산당>이라고 확정하였다.

그리고 당의 강령을 <혁명군대는 반드시 무산계급과 함께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뒤엎고 계급투쟁이 끝날 때까지 즉 사회계급이 소멸할 때까지 무산계급독재를 인정한다.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제를 폐기하고 기계, 토지, 공장, 반제품 등 생산수단을 몰수해 사회가 공유한다. 국제공산당과 연합한다.>고 규정하였다. 강령은 노동자, 농민과 군인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당의 근본적인 정치목적은 사회혁명을 실행하는것이라고 확정하였다.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강령은 중국공산당이 창건초기부터 기치선명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선각자들은 장기간의 철저한 탐구를 거쳐 맑스주의라는 정확한 혁명리론을 찾았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만이 중국을 구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는 그들이 중국혁명에 대한 인식에 시대적의의를 더해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국정과 중국혁명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단지 로씨야사회주의 10 월혁명 승리이후 세계의 전반정세에 따라 중국혁명은 필시 무산계급을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군벌을 반대하는 민족민주혁명과 모든 착취를 없애고 사유제를 소멸하는 사회주의혁명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반식민지반봉건의 중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직접 진행할수 있고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할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이라는 매우 특수한 사회조건하에서 사회주의혁명을 곧바로 실시할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갖 탄생한 중국공산당은 미처 정확한 인식을 가질수 없었다. 맑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혁명의 실정에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탐구하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였다.

대회는 진독수, 장국도, 리달로 중앙국을 구성했으며 진독수를 서기로 선출하고 장국도가 조직사업을, 리달이 선전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중국공산당 창건대회는 반동통치의 백색테로공포속에서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대회회의장에서 제국주의 비밀정탐원들과 경찰들의 방해를 받았던 것외에는 사회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이 때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암흑한 중국대지에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 제 1 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창건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 때로부터 락후하였던 중국에는 완전히 신식으로 구성된 맑스주의를 행동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투쟁목표로 하는 통일된 무산계급정당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력사상 천지개벽의 일대 사건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여러 민족인민이 압박과 착취를 받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족독립과 인민해방, 나라의 부강을 실현하며 공산주의라는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불요불굴하게 험난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로인세계

세계인공지능협조기구 창설

세계인공지능협조기구 창설협정조인식이 16일 중국의 상해시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로씨야, 라오스, 까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29개 나라의 대표들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독자적인 정부간국제기구인 세계인공지능협조기구는 인공지능이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전인류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기구의 본부는 중국 상해시에 두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 2026 월드컵 우승 차지



미국·캐나다·메히꼬 월드컵 결승전에서 에스빠냐팀은 연장전을 통해 지난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이겨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팀 역사상 2번째로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간 동안 양팀은 0:0으로 비겼다. 아르헨티나팀은 무슈팅인 반면 에스빠냐팀은 15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계속 상대를 압박했지만 끝내 골을 넣지 못했다.

아르헨티나팀 선수 엔초페르난데스가 후반 추가시간에 반칙을 범해 경고루적으로 퇴장당했다.

연장전 제 106분에 폴로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윌리엄스가 헤딩으로 이를 만회했으며 중앙으로 침투하던 페란 토레스가 침착하게 골망을 갈라 결승골을 터뜨렸다. 전체 경기에서 에스빠냐팀의 슈팅수는 20:2로 크게 앞섰다.

에스빠냐팀은 2008년과 2010년에 연속 유럽선수권대회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 그들은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와 2026년 미국, 캐나다, 메히꼬 월드컵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두번째로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에스빠냐팀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골을 내주며 월드컵 우승팀 단일대회 최소 실점기록을 새롭게 세웠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후 에스빠냐팀은 38경기 연속 정규시간 동안 무패를 유지하며 유럽팀의 최장 무패기록을 갱신했다.

8골을 기록 중이던 메시가 이번 결승전에서 득점에 실패함에 따라 음바페는 10골로 이번 월드컵의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에스빠냐팀 로드리게스가 골든볼(金球獎)을 차지했다.

/인민넷-조문관

7 대기적으로 꼽히는 세계 고대유적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당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대한 건설규모,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하여 놀라움을 자아내는 명승고적들을 가리켜 7 대기적이라고 불려왔다.

세계고대유적의 7 대기적은 다음과 같다.

- 에집트의 피라미드

주로 미이라를 보관하기 위하여 축성한 건축물이다.

고대에집트왕들의 무덤을 가리키기도 한다.

피라미드들중에서 제일 큰것으로 알려진 후푸왕의 피라미드는 B. C. 28세기에 세워진것으로서 높이가 140m 이상 된다.

230만~250만개의 큰돌로 쌓아 만들었는데 돌의 평균무게는 2.5t 정도이라고 한다.

- 바빌론의 공중화원

이라크의 고대바빌론시유적을 발굴한데 의하면 바빌론궁전안에 독특한 립체화원이 있었다. 이것을 바빌론의 공중화원이라고 한다.

화원은 여러층으로 된 대를 공중에 매달린것처럼 쌓고 층층마다 기이한 화초를 심어 멀리에서 바라보면 마치 봉우리모양의 화원을 공중에 높이 걸어놓은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이 화원을 《공중에 걸어놓은 화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아르테미스신전

튀르키예에 있는 고대그리스도시의 신전이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여신이다. B. C. 550년경에 세워졌다.

높이가 20m에 달하는 120여개의 기둥에 떠받들리우고 그중 30개 기둥의 밑부분에 금조각군상이 새겨져있다.

B. C. 356년에 파괴된것을 그후 다시 재건하였으나 침략자들에 의하여 또다시 파괴되었다.

- 제우스신상

그리스의 고대도시 올림피아에는 B. C. 5세기경에 건설된 제우스신전이 있다.

여기에 제우스신상이 세워졌었다.

그리스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신상은 금과 상아로 형상되었으며 높이는 14m에 달하였다고 한다. 현재 실물은 보존되어있지 않다.

- 마우솔로스릉묘

튀르키예의 보드룸에 있는 고대페르시아국가 카리아의 마우솔로스왕의 묘이다.

왕후 아르테미씨아에 의하여 B. C. 4세기경에 건설되었다.

릉묘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있으며 무덤의 꼭대기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탄 마우솔로스왕과 왕후를 형상한 조각상 등이 있다.

이 릉묘는 웅장화려함과 특이한 건축미로 하여 고대그리스나 고대로마제국시기 왕릉 건설에서 본보기로 되었다.

릉묘는 15~1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마우솔로스왕과 왕후의 립상, 여성무사들을 형상한 부각상의 일부는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약탈당하였다.

- 헬리오스대동상

지중해의 로도스섬에 그리스신화의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대동상이 건립되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것은 보존되어있지 않다.

- 파로스섬의 등대

에집트의 파로스섬에 있던 등대이다. B. C. 283년경에 세워졌다.

흰 대리석으로 된 등대의 높이는 160m이다.

등대안에 300개의 방이 있었다고 한다.

세계등대건축의 조상으로 보고있다. 1375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전략미사일시험발사훈련 진행, 미국과 일본 등의 비난을 일축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6일 전략미사일시험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날 중국인민해방군의 전략핵잠수함은 태평양의 해당 공해수역을 향해 훈련모의탄두가 장착된 전략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미사일은 예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한편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이 미사일시험발사훈련을 걸고들며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중국의 년례적인 군사훈련계획에 따른것으로서 특정한 나라와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해당 나라들에 통보되었을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부합된다고 단호히 일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하고 충실한 군대를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될수 있다고 강조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6일 군사대학졸업생들과 고급군관들을 축하하는 의식에서 강하고 잘 무장되었으며 국가와 인민에게 충실한 군대를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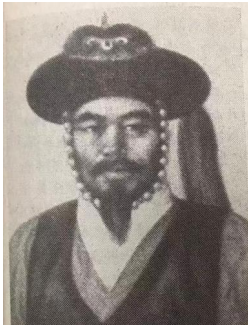
그는 벨라루씨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적들에게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제적인 강요와 정치적 및 정보적압박, 적극적인 간첩행위, 남부국경에서의 도발 등을 통해 벨라루씨를 반대하는 혼합전쟁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최신형미사일종합체와 전술핵무기의 배비는 뜨겁게 달아오른 서방의 머리들을 식혀줄수 있는 중요한 전략억제요소로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국명장 리순신



조선 봉건왕조시기의 애국명장 리순신(1545-1598)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바다에서 쳐물리친 애국명장이다. 리순신의 자는 여해, 본은 덕수,

시호는 충무이다.

리순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쳐부시는데 리용하였으며 뛰어난 전법과 지휘로 전투들에서 승리를 이룩하였다.

리순신은 어려서부터 군사놀이를 즐겨하였으며 글공부도 잘하였다.

리순신이 소년시절부터 나타냈던 무인다운 기질과 식견은 그대로 과거보는 마당에서 발현되어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시험관들은 리순신이 무술에 아주 능할뿐 아니라 병서에 밝고 고금의 역사에도 식견이 깊은것에 감탄하여 그를 가장 우수한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1576년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다. 뛰어난 군사적재능을 가지고있어 이미 1587년 조산보만호로 있을 때 두만강어구의 록둔도에 침입한 녀진인들을 쳐물리친 일이 있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591년(선조 24년)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파견되어 수군을 꾸리는데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한편 전함건조에 있는 힘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순신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기여드는 왜적을 바다우에서 물리쳤 습니다.》

1431년(세종 13년)에 우리 선조들은 거북선을 만들어 립진강에서 왜선과 싸우는 연습을 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

리순신은 우리 선조들의 배건조기술에 토대하여 거북선을 개량완성하였다.

거북선의 최대길이는 약 35m 이고 최대 너비는 11.8 m 이다. 현측높이는 3.535 m 이고 횡단면의 높이는 5.235m 로서 규모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전선이였다.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며 적들의 화살이나 총알이 날아와도 뚫지 못하는 독특한 병선인 거북선은 견고하고도 속도가 빠르고 화력장비가 우수하여 당시로서는 비길데 없이 위력한 병선이였다.

임진조국전쟁전 거북선의 진수식이 진행 되는 날 바다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철갑선의 위용을 지켜보았다.

거북선이 닻을 올리자 배는 무서운 룡대 가리를 쳐들고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앞으로 나갔다.

《저것 보라!》 《야, 무섭다,》 바다가에 모여선 구경군들이 저저마다 떠들어댔다. 리순신이 타고있던 함선에서 령기가 흔들리자 북소리가 나고 나팔소리가 울렸

다. 거북선이 바다 한복판에 이르자 속력을 멈추고 섰다. 그순간 《팽》하는 소리가 나며 통의 아가리에서 시커먼 연기가 일어났다. 동시에 길이 아홉자의 장군전 불화살이 나가고 뒤미처 시뻘건 불철헤들이 구름같은 검은 연기를 뿜어헤치고 쏟아졌다.

통아가리에 장치한 지자총통을 쏜것이다. 함선우에서 또 기가 흔들리더니 좌우측 수십여개의 포문이 일시에 열리었다.

《쿵쾅, 우르르》소리와 함께 불살이 어지럽게 날아가며 시뻘건 불철헤들이 쏟아져나왔다.

구경꾼들은 너무 놀라 주저앉기까지 하였다.

거북선의 진수식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적도 쳐물리칠수 있다는 든든한 배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완성시킨 리순신은 왜적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승자총을 만들고 가벼운 대완구, 호준포도 제작하였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적의 배를 끌어당기기 위한 쇠사슬이 달린 네발갈구리, 자루긴 낚을 많이 만들어 배마다 간수하게 하였다.

리순신은 수공업자들 및 수군병사들과 힘을 합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비롯하여 전함들을 여러척 만들어냈다.

1592년 4월 13일 왜적들이 우리 나라의 부산에 침입함으로써 최악에 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왜적들이 조선침략을 위하여 동원한 무력은 15만 3700명의 육군과 수만명의 수군을 합하여 20여만에 달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리순신은 조선함대를 이끌고 왜적격멸에 떨쳐나섰다.

1592년 5월초 옥포해전에서 26척의 적선을 격침시켰다. 5월말 적들이 사천, 곤

양, 로랑 등을 거쳐 좌수영앞바다로 침입한다는 급보가 전달되었다. 리순신은 다른 함선들은 뒤를 따라오게 하고 자신이 함선 23척을 이끌고 좌수영을 떠나 출전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철갑거북선이 첫 출전의 닳을 올렸다. 리순신은 원균판하의 3척의 함선과 합세하여 26척의 편함함대를 편성하여 사천에 이르러 적을 공격하였다.

조선수군의 사나운 공격에 질겁한 적들은 포구에 함선을 정박시키고 산에 올라 대항해나섰다.

싸움의 형세를 살피던 리순신은 갑자기 모든 배들에 퇴각명령을 내리었다.

《모든 함선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 바다복판으로 물러서라.》

《조선수군이 퇴각한다. 빨리 배에 올라 추격하라.》 적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왜적들은 기세등등하여 조선함선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다.

적함대가 바다복판에 나서자 리순신은 갑자기 배머리를 돌려 공격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북소리가 울리자 거북선이 앞으로 나서고 수십여척의 함선들이 거북선 좌우로 갈라섰다. 거북선이 통의 아가리를 켜벌리고 포문을 열어 화전을 쏘니 적선들은 공중잡이를 하며 뒤집어졌다.

거북선의 돌격에 뒤따라 전함대가 일제히 포탄과 화살을 퍼부어 수많은 적을 소멸하고 적함 12척을 격침하였으며 1척은 나포하였다.

리순신은 전투에서 적의 총알에 왼쪽 어깨를 맞아 피가 흘렀지만 까딱않고 적의 일진을 없앴후에야 칼끝으로 총알을 파내고 고약을 붙이였다.

세계력사상 이름난 거북선은 사천해전때부터 실전에 참가하여 위력을 떨치였다.

(다음호에 이음)

에스빠냐



에스빠냐는 구라파의 서남쪽 지중해와 대서양사이의 이베리아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동북부는 베레네산맥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린접하고 서부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남부는 지브롤터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의 마로코와 마주하고있다.

동부는 지중해, 서북부와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이 나라의 남북길이는 약 830 km, 동서길이는

1000 km 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7800 km 이다.

면적은 50 만 4,750 km² (발레아르, 카나리아군도 포함)로서 전국을 17 개자치구로 나눈다. 인구는 4,740 만명이다.

수도 마드리드의 인구는 340 만명이다, 96%주민이 천주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까스텔라어)이다.

동북부에는 까딸로니아어, 북부에서는 바스크어가 많이 쓰인다.

지형은 고원이 위주인데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근 3/1의 땅이 해발 1000 m 이상이다. 북부에는 깎파브리까산맥과 베레네산맥이 있다.

연해지방과 강들의 중하류지역에 작은 평원들이 있다.

기후는 복잡한 지형의 영향을 받아 남북의 차이가 심하나 대부분지방은 대륙성기후이다. 연해지방은 해양성기후로서 사철 따뜻하다.

강수량은 한해에 1,500~2,000 mm이고 내륙지대에서 500 mm이다.

물이 부족한 곳이다. 산림피복률은 30%이다.

지하자원은 석탄, 철광석, 동, 수은 등이 있다.

주민은 대부분 에스빠냐인이나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오랜 역사적과정에 이베로, 켈트, 로마, 아랍 등 여러 인종과의 혼혈을 이루고있다.

1492 년 통일된 에스빠냐봉건왕조를 건립하였다.

같은해 이탈리아의 항해가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때로부터 에스빠냐는 점차 해양강국으로 되어 구라파,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1050 만평방키로메터면적의 식민지제국을 만들었다.

아메리카의 수많은 인디안인들을 살륙하고 방대한 령토를 약탈하여 첫번째로 되는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웠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제외) 많은 나라들이 에스빠냐어를 사용하는것을 보아도 당시 에스빠냐의 세력을 알수있다.

1588 년 <무적함대>가 영국에 격파당하여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1873 년에 첫 공화국을 세우고 1931 년에 제 2 공화국을 건립하였다.

1936 년부터 1939 년까지 내전이 폭발하고 1947 년에는 군주제국가로 선포하고 1978 년에 의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었다.

국왕이 국가원수이고 무장력의 최고통치자이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고 참의원은 266명, 중의원은 350명이다. 에스빠냐는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공업부문에서는 강철, 자동차, 화학, 기계, 선박 건조, 세멘트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었으며 그밖에 농산물가공업, 방직공업 등이 있다.
 농업현대화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올리브기름산량과 포도재배면적이 세계에서 제일로 많다.
 농산물은 서구라파에서 프랑스,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다음가며 밀, 보리, 감자가 기본이다.
 농업총생산에서 알곡과 과일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에스빠냐는 경치도 좋고 기후도 적합하고 고대유적들도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고있다.
 에스빠냐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며 축구를 좋아한다.
 세계에 이름난 투우술은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적색채를 나타내며 이것은 관광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말소리 흐름과 문장의 발음

아름다운 우리 말 발음의 우수성은 말소리흐름과 그것을 문장단위로 통일짓고 꾸며주는 억양에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말은 말소리흐름의 구성이 조화롭게 되어있으며 그것을 운율적으로 꾸며주는 훌륭한 억양을 가지고있어 듣기에도 좋고 류창하며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의 억양은 높낮이변화가 심하지 않고 유순하면서도 음악적이며 힘주기와 박자가 고르롭고 틀동적이어서 듣기에도 류창하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고상한 감정정서에 맞게 억양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세련되고 다듬어졌으며 건전하고 씩씩하며 힘있는 억양이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려는 사상적내용과 우리 인민의 정서적미감에 맞게 말소리흐름을 잘 구성하고 알맞는 억양을 정확히 구사하는것은 문화어발음의 우수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다선다.

말소리흐름은 소리토막들의 단순한 련결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말소리흐름은 소리토막들의 기계적인 라렬도 아니며 순수한 소리토막의 총화도 아니다.

말소리흐름에는 억양이 덧붙여있으며 이 억양에 의해 소리토막들이 련결되면서 보다 크고 완결된 뜻을 나타내는 발음덩어리들로 묶어진다.

말소리흐름속에는 억양에 의해 소리토막들이 련결되어 이루어지는 발음덩어리들이 하나이상 들어가있다.

이러한 발음덩어리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말소리흐름을 이루는 가장 큰 발음덩어리인 소리동강이며 다른 하나는 소리동강과 소리토막사이에 놓이는 소리매듭이다.

소리동강은 하나이상의 소리토막이 억양에 의하여 묶여진 전일적인 발음덩어리이며 문장과 일치하는 가장 큰 발음단위이다

0 12 월의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내려 온 강산을 덮는다. (하나의 소리동강)

0 싸락눈이 자욱하게 쏟아져내렸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인지 분간할수 없고 언덕도 길도 보이질 않는다. 나무마다 흰 고깔을 쓰고 가지들이 휘어졌다.

전선줄에도 눈이 쌓여 흰 무명필을 공중에 늘인것 같다. (네개의 소리동강)

① 소리동강은 억양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진 소리토막의 결합체이며 하나의 전일적인 발음덩어리이다.

소리동강은 하나이상의 소리토막으로 이루어진다.

소리동강속에 들어가는 소리토막들은 억양의 지배속에 놓이는 소리마루들의 련결에 의해 하나의 련속된 발음덩어리로 묶여진다.

말소리흐름에서 소리동강의 앞뒤에는 발음기관의 운동이 중단되는것으로 하여 생기는 비교적 긴 끊기가 오며 끝부분에서는 소리동강이 끝남을 알리는 특징적인 억양이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특징적인 끊기와 끝맺음의 억양을 표식으로 하여 소리동강은 이웃에 있는 다른 소리동강과 구획되며 이런 구획은 소리동강안의 소리토막들의 통일적인 련결을 보다 확고한것으로 되게 한다.

②소리동강은 말소리흐름의 기본단위이다.

소리동강에서는 모든 발음단위, 발음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소리동강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 감정을 매듭지어 나타낼수 있는 체모를 갖춘 발음덩어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소리동강은 그것만으로 언어행위의 구체적인 실현단위로 되어 그대로 말소리흐름속에 들어간다.

소리토막은 그것만으로는 억양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다만 소리마루만을 가지고있을뿐이다.

소리토막이 말소리흐름속에 들어가자면 억양에 의하여 다듬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리토막은 매듭지어진 사상과 감정을 나타낼수 있는 체모도 갖추고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소리토막은 말소리흐름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일뿐이며 소리동강만이 말소리흐름의 기본단위로 된다.

모든 말소리흐름은 소리동강이 련결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동강은 문장과 일치하는 가장 큰 발음단위이다.

소리동강은 발음단위들가운데서 가장 큰것이다.

소리동강보다 더 큰 발음단위란 없다.

소리동강은 문장과 일치한다.

한개 문장은 한개의 소리동강을 이루며 한개의 소리동강은 곧 한개의 문장이다.



장편소설

림 걱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전호에서 이음)

그날 저녁 걱정은 유복, 서림, 천왕동 그리고 백정촌사람들과 마주앉았다. 먼저 서림이 걱정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하였소.》

《아까 리별장이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만 피하구 없으면 내 식구들을 자기가 어떻게 주선해서 살려내보내겠다구 나더러 도망을 가람디다.》

걱정의 말끝에 유복이 나섰다.

《그러면 됐소. 형님, 우리한테루 갑시다. 숨어있기야 우리께가 좋지않소?》

그러자 황천왕동이 얼굴을 붉히며 그의 말을 반대했다.

《아니, 그게 될 말이요? 옥에 남은 식구들은 모두 팔삭동이처럼 죽어나오게 될텐데 그게 무슨 소리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였으나 걱정은 그저 눈을 감고 앉아있을뿐이었다. 천왕동이 걱정을 잡아흔들었다.

《형님, 이까짓놈의 세상에서 무얼 바랄게 있다가 식구들은 옥에 처넣구 구구하게 도망질을 한단 말이요? 아예 파옥해서 식구들까지 뽑아가지구 청석골루 들어갑시다.》

걱정이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있어서 성미급한 천왕동은 조바심이났다.

《형님, 어떻게든지 빨리 결심을 하시우.》 걱정은 비로소 눈을 뜨고 애기에게 말하였다.

《저녁밥을 곧 지어라.》

걱정은 다시 눈을 감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한갈래는 식구들이 갇혀있는 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한번 들어가면 틀림없이 살아서는 나올수 없는 길이였다. 죽는게 무서운것이 아니라 지금껏 밟히고 눌리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행여나 무엇인가 바라며 기다려온 인생의 끝이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길이였다.

다른 한길은 식구들을 옥안에 내버리고 자기만 정처없이 떠나는 길이였다. 이 길을 택하면 자기의 목숨을 구할수는 있으나 일생 도망군의 신세로 끝을 맺어야 할 것이고 특히는 살아서 다시는 집안식구들을 만나볼 기약이 없을것이였다.

마지막 한길은 식구들을 옥에서 뽑아가지고 청석골로 들어가는 길이였다. 그것은 칼을 뽑아들고 이놈의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는 길이다. 백정도 사람인데 사람의 오장육부를 가지고 짐승처럼 량반놈들의 몽둥이에 고분고분 얻어맞다가 그대로 죽을수는 없었다.

그러나 --- 그러나 정작 마지막 한발자국 결심을 앞두고 걱정은 망설이였다.

바로 이때였다. 백정촌에 남아있던 젊은 사람 하나가 달려들어오더니 방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오늘 해질무렵에 읍내 최생원이란 놈이 사음(마름)을 거느리구 우리 촌에 나타났댔어유. 그놈은 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 놓구 <네놈들은 날 때부터 타구난 도적놈들이다. 남의 땅을 논으



루 일귀서 그만큼 공으루 처먹은것만 해 두 모조리 잡아서 귀양을 보낼만한 죄이다. 만약 올해도 곱게 말을 듣지 않구 논갈이를 제맘대루 시작하면 읍내 사는 걱정이처럼 화적패루 몰아서 옥귀신을 만들어놓을테니 그리 알아라.> 하구 으름장을 놓습디다.》

이 말을 들은 백정촌사람들은 흥분해서 웅성거렸다. 성미 급한 천왕동이 소식을 가져온 젊은 사람을 욕박질렀다.

《아니, 손들이 멀쩡해가지구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의 아가리를 찢어놓지 않구 그냥 보냈단 말이요?》

《동네에 주동이 될만 한 사람들은 전부 이 집에 와있구 남아있었다는게 아나네들과 늙은이들뿐이니까 별소릴 다해두 잡자코 있었지요.》 젊은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다.

지금껏 눈을 감고 앉아있던 걱정이 갑자기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는 사람처럼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부르짖듯이 말했다.

《최생원이란 놈의 말이 옳은가보우. 이 놈의 세상에서 우리같은 사람이 기를 펴구 살자면 량반놈들한테서 도적놈소리를 듣는 도리밖에 다른 길이 없소. 량반놈들이 우리더러 타고난 도적놈이라니 어디 우리가 어떤 <도적놈> 들인가 툭툭히 맛을 보여주어야 하오. 자, 청석골에 들어갈테니 옥안에서 식구들을 빼낼 계책을 의논합시다.》

천왕동과 유복이 환성을 질렀다. 서림이 걱정의 말을 선뜻 받았다.

《계책은 넘려마십시오.》 《나는 따루 할일이 있소.》 《무슨 일인가요?》 《우리더러 날 때부터 타고난 도적놈이라구 떠든 량반놈의 낯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구 올테요.》 《네, 최생원이란 놈 말씀이지요?》 걱정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때 백정촌사람들이 걱정에게 말했다.

《우리두 립서방하구 같이 가서 그놈의 낯짝을 구경하구 올테요.》

걱정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남자들은 이제 곧 촌으루 돌아가서 여기 일은 아는데두 하지 마오.》

《그럼 우리는 마을에 돌아가 량반놈들이 하는짓을 고스란히 당하구 죽으란 말아요? 그렇게 못하겠소.》

백정촌사람 하나가 걱정의 말에 열을 올리며 대들자 나머지사람들이 와- 하고 떠들었다.

《림서방이 여기를 뜨면 우린 누굴 민구의지하라우? 우리두 립서방을 따라 마을을 뜨겠소.》

《이왕지사 치마가 젖었는데 이제 와서 이슬을 가리겠소? 이래두 죽구 저래두 죽는바엔 한번 량반놈과 맞서보는게지.》

《림서방, 우릴 버리지 말구 함께 데리구가우.》 걱정은 한동안 말없이 백정촌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주 죽을 작정을 하구 나서는 사람ियो. 지금 나를 따라나섰다가 이담에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하지 않을테니 넘려마오.》 《죽어두 한번 사람답게 살다가 죽구싶소.》

《제길, 죽는게 무서운 놈들은 동네에 그냥 남아서 량반놈의 종질이나 하며 실컷 잘살라지.》 백정촌사람들은 주먹을 쳐들며 제각기 소리쳤다.

걱정은 백정촌사람들을 데리고 청석골에 들어갈것을 결심하였다. 백정촌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여 몇사람은 먼저 동네에 가서 사람들의 의향을 묻은 다음 걱정을 따라갈 사람들과 그들의 식구들을 데리고 앞길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 집에 눌러있다가 걱정과 행동을 같이하기로하였다.

그날밤 자정이 지났을 때였다. 천왕동과 박유복이 백정촌사람들을 데리고 옥으로 떠났다. 파옥할 도구로는 천왕동이가 도끼 한자루를 손에 들었고 만약의 경우에 싸울 무기로는 유복이 대가치뿔창을 한줌가득 쥐였다.



파옥할 사람들이 떠난 뒤에 걱정 역시 두사람을 데리고 향교 뒤골목에 있는 최생원의 집으로 갔다. 걱정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최생원을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걱정이 최생원의 집에서 일을 끝내고 약속한 자리에 와보니 서림은 벌써 송방집과 걱정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한동안을 기다려도 파옥하러 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은 근심하였다.

《내가 얼른 옥에까지 가보구 올테니 그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 계시우.》

그는 참다 못해 서림에게 이렇게 말하고 옥으로 향했다. 옥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걱정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고함소리를 들었다.

《이거 무슨 일이 난제다.》

그는 정신없이 장달음을 놓았다.

천왕동과 유복은 옥에 와서 갇혀있는 식구들에게 파옥하려는 뜻을 알려주고 곧 도끼로 옥문을 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번에 떨어져나갈것 같던 옥문이 잘 부서지지 않았다. 도끼질소리를 들은 옥사장은 사태를 짐작하고 자기 집 식구들을 시켜 관가에 알렸다.

군수는 걱정이 파옥을 한다는 급보를 받고 먼저 장교 여라문명을 옥으로 보낸 다음 부랴부랴 수교이하 전체 장교들에게 무기를 주어 옥으로 보냈다.

천왕동과 유복은 가까스로 옥문을 부시고 식구들을 빼냈다.

이때 길목을 망보던 백정촌사람들이 달려와서 장교놈들 여라문명이 앞길을 막고 달려든다고 알려주었다.

유복이 천왕동에게 말했다. 《저놈들은 내가 처리할테니 자네는 이 사람들을 데리구 식구들을 보호하게.》

유복의 말대로 천왕동과 백정촌사람들은 애기 어머니, 백 손이 어머니, 백 손이를 끌고 뒤에 물러나고 유복이 대가치뽕창을 꺼내들며 앞으로 나서서 소리쳤다.

《네놈들이 감히 우리의 앞길을 막을테냐? 죽어두 원망 안할라거든 어디 막아봐라.》 유복의 재주를 모르는 양주의 장교놈들은 앞에 나선 사람이 걱정이기 아닌가만 넘보고 몽둥이들을 휘두르며 내달다가 대가치뽕창에 맞고 두서넛이 꼬꾸라져서야 와- 하고 도망을 쳤다.

유복과 천왕동은 식구들을 데리고 큰길에 나왔다.

천왕동은 식구들과 같이 앞장에 서고 유복은 뒤에 서서 한밤중의 소동에 놀라깨여 술렁거리는 양주읍내를 무인지경같이 지나왔다. 그들은 약속한 자리에 와서 걱정의 일행을 만나고 또 얼마가량 더 걸어서 수십명이나 되는 백정촌사람들의 일행을 만났다. 이십리 남짓하게 걸으니 날이 밝았다. 걱정은 오륙십명의 큰 일행을 이끌고 산속에 들어가서 낮을 보냈다.

다음날밤에 그들은 립진나루에 들어섰다. 봉학은 벌써 낮에 양주소식을 듣고 근심하던중이었다. 그는 긴 말 않고 배 한척을 내주었다. 걱정의 일행은 봉학의 도움으로 립진강을 건너 이튿날 한밤중에 청석골로 들어갔다.

립걱정이 양주에서 큰 란리를 내다싶이 하고 사라진 후 양주군수의 보고가 경기감영과 서울포도청으로 올라갔다. 경기감영에서는 양주군수의 보고를 급히 임금에게 올려보냈고 포도청에서는 부장이 내려와서 사건의 진상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한동안 뒤숭숭하던 끝에 양주군수는 걱정을 놓친 죄로 벼슬에서 쫓겨나고 경기감영과 포도청에서는 다같이 걱정의 자취를 찾으려고 서둘렀다. 걱정의 일행이 오륙십명이나 되는 큰 무리인데 양주에서 파주길로 간것은 분명하나 립진나루를 건너간 행적이 없었기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립걱정이 청석골로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청석골사람들의 한패가 신계땅의 어느 못된 량반놈의 집을 습격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판군의 살을 맞고 잡히는 바람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서울포도청과 황해감영, 송도부에서는 청석골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서울포도청의 패두 리익근이란 놈이 군사 스무명과 함께 청석골을 탐지하려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청석골사람들의 활질에 하나도 살아나오지 못하고 몰살을 당하였다.

포도부장 한놈은 군사 몇명을 거느리고 봉산에 내려가서 황천왕동을 잡으려 하였으나 이미 황천왕동이 안해까지 청석골로 데려간 뒤라 헛물을 켜고말았다.

바로 이때 립진별장 리봉학도 서울포도청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립진나루의 진군 특십여명중에 포도청의 끄나불이 몇놈 박혀있었는데 그놈들이 립걱정이 밤배로 건너간 사실을 밀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포도청에서는 의심하면서도 리봉학을 선뜻 체포하지는 못했다. 당시의 법이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의 지시가 있어야 체포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포도청놈들에게 사실이 드러났다는것을 짐작한 봉학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래지 않아 임금의 지시가 내려오면 자기는 잡혀갈것이고 잡혀가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었다.

그의 고민을 알게 된 계향은 마지막수단으로 서울에 있는 리윤경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권고하였다. 봉학은 리윤경이 도와주지 않으리라는것을 뻔히 알았지만 물에 빠지면 지푸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향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봉학은 서울로 떠날수 없었다. 립진에 내려와서 봉학을 감시하고있던 포도부장놈이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기때문이었다. 봉학은 오도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잡혀가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서 립진별장 리봉학을 체포하여 서울로 올려오라는 임금의 지시를 가진 금부도사가 립진에 내려왔다. 금부도사와 포도부장은 리봉학과 계향을 잡아 묶어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포도부장은 포도군사들을 데리고 앞서고 금부도사는 라장, 라줄에게 덜미를

잡힌 봉학과 계향을 데리고 뒤에서서 갔다.

금부도사놈이 길을 재촉하여 일행이 안화산의 길목을 지나 동거리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량반의 옷차림을 한 젊은 사람 하나가 하인도 없이 마주 오다가 금부도사의 일행을 보자 갑자기 돌아서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 량반의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른지 보통사람은 달음박질로도 따라가기 어려울것 같았다.

포도군사들은 순식간에 앞에서 사라진 그 량반의 뒤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의 걸음이 저렇게 빠를수두 있을가?》 《글쎄, 축지법을 쓰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림걱정의 처남인 황가놈의 걸음이 평장히 재다던데 혹시 그놈이 아닐가?》

《그런지두 몰라. 우리 쫓아가보세.》

《벌써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두 않는데 쫓아가면 붙잡겠나?》 리봉학은 포도군사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황천왕동이 량반의 옷차림을 하고 나를 찾아 립진으로 오다가 포도군사놈들을 보구 어디로 피한게로군.》

이런 생각을 하며 봉학은 바보처럼 멍청히 앉아있다가 봉변을 당한 자기의 우유부단한 처사를 후회했다. 대엿새전에 천왕동이 량반으로 변장을 하고 립진에 찾아왔었다. 천왕동은 립걱정이 몹시 근심하고있다는것을 전하고 일단 사실이 드러난 이상 서울로 잡혀가기 전에 몸을 빼여 청석골로 오는것이 상책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때 봉학은 차차 일이 되어가는것을 두고보면서 결심하려고 대답을 미루었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되고만 것이었다.

봉학이 이런 착잡한 생각에 파묻혀있는 동안 일행은 어느새 혜음령고개밑에 이르렀다. 일행은 비탈길에 올라섰다. 길에는 사람이 없고 산에 나무군도 없어서 보이는 것은 길가 나무우의 까막까치뿐이였고 들리는것도 이름모를 산새들의 지저귐뿐이었다.



헤음령밑에 다 와서 올려다보니 고개중턱에 사람 서넛이 몰켜서서 밑을 내려다 보고있었다. 금부도사는 수상하게 생각하고 포도부장과 포도군사들을 먼저 올려보냈다. 칼을 뽑아든 포도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개우로 올라간지 한동안이 지났다. 금부도사는 해가 저무는데 포도부장과 군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가 포도부장을 기다리다 못해 떠나려고 말안장우에 올라앉으려는데 난데없는 고함소리와 악쓰는 소리가 고개우에서 바람결에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 겁이 나서 감히 올라갈 엄두를 낼수 없었다

금부도사놈이 어쩔가 망설이고있는데 갑자기 창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여라문명이나 쓸어오더니 금부도사와 라장, 라졸들을 사정없이 짓조기기 시작하였다.

리봉학은 그들속에서 황천왕동을 알아보고 깜짝놀랐다.

그는 반가와서 천왕동을 급히 찾았다.

《이 사람, 여기 좀 오게.》 봉학이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쳐서야 천왕동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잠간만 기다리우. 이놈들을 다 묶어놓구 이야기합시다.》

눈깜짝할 사이에 금부도사놈과 라장, 라졸들이 뒤결박을 당하고 꿰어앉았다. 그제야 천왕동이 뛰여와서 봉학의 결박을 풀어주고 계향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고개우에서 도망하여 내려오던 포도군사들이 뛰여오다가 고개밑의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주춤하여 섰다. 칼을 든 사람이 고개우에서 따라내려왔다. 그가 바로 길막봉이었다.

《오냐, 이놈들 여기 있었구나.》

막봉이 소리를 지르자 포도군사놈들은 다급하여 고개밑으로 뛰여내려왔다. 천왕동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와 하고 대들어서 포도군사놈들을 붙잡아 묶었다.

《황두령, 거기 있소?》

막봉이 고개우에서 소리쳤다.

《길두령인가? 어서 내려오게.》

천왕동이 밑에서 마주 소리쳤다
막봉은 내려와서 봉학에게 인사를 하고 잡아묶어놓은 금부도사놈의 일행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놈들을 어떻게 처리할가?》

《숲속에 끌구 들어가서 나무에 붙들어 매놓으면 어떨가?》

《그게 좋겠소. 그럼 내가 헤음령사람들과 함께 저놈들을 숲에 끌어드놓구 오리다.》

막봉은 사람들을 지휘하여 결박한 놈들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천왕동은 봉학에게 그동안 청석골에서 있었던 일을 대충 들려주었다. 천왕동은 립진에 다녀와서 걱정과 여러 두령들에게 봉학의 신변이 아주 위태하다는것과 봉학이 청석골에 들어올 결심을 아직 못하고있다는것을 이야기하였다. 걱정은 봉학을 설복하기 위하여 천왕동을 다시 립진으로 보내면서 만일을 생각하여 길막봉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막봉은 헤음령패의 두령들과 잘 아는 사이여서 혹시 잡혀가는 봉학을 길에서 만나면 헤음령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천왕동은 길막봉과 함께 청석골을 떠나 그날로 헤음령에 와서 헤음령패의 두령정상갑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다음날 천왕동은 막봉을 헤음령에 떨구고 혼자 립진으로 가다가 금부도사와 포도부장에게 잡혀오는 봉학을 길에서 만나게 된 것이였다. 당황한 천왕동이 급히 돌아서서 헤음령으로 왔으나 헤음령사람들은 아직 다 모이지 않았고 길막봉과 두어사람이 있을뿐이였다. 길막봉은 헤음령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고개우에 올라가 금부도사의 일행을 지체시키고 천왕동은 헤음령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뒤따라 달려온 것이였다.

그들은 막봉이가 헤음령사람들과 함께 숲속에서 나왔을 때에야 이야기를 끝냈다. 천왕동과 막봉은 헤음령사람들과 작별한 다음 봉학과 계향을 데리고 청석골로 향했다.

(다음호에 이음)

